

아름다운 사랑

2006 아름답고 슬픈 스릴러

이민홍 PD

#1. 프롤로그. 폐염전. 밤

황갈색 보름달에 서서히 먹구름이 드리워지면,
시커먼 폐염전의 밤길 위로 추적추적 떨어지기 시작하는 빗방울.
그 폐염전 한가운데 웅하니 시커멓게 썩은 나무로 세워져있는 소금창고.
빗물은 처마에 고여 바닥에 툭, 툭, 떨어지고...
빠거덕빠거덕 조금씩 흔들리는 소금창고의 문.
그 어둠의 적막사이로 들리기 시작하는 여고생들의 종알거리는 목소리.
("아... 뭐 이런날 재섭게 비가 오고 지랄이야." "괜히 비까지 오고 그러니까 무섭다." 등등의...)
창고에서 조금 떨어진 비포장도로를 걸어오는 두 여고생의 목소리다.
곳곳에 세워진 전봇대들이 외등불을 비춰주지만,
간간히 망가져 깜박거리는 외등불들은 오히려 이 학생들을 위태로워 보이게 만드는데...

여고생1: (눈을 흘기며) 이 길로 누가 오자고 그랬는데?

여고생2: 그래도 이 길이 빨라. 널 또 새벽같이 나올라고 생각해봐라.

여고생1: 아... 씨발, 잠깐 담치고 오뎅 좀 먹고 온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사람을 붙잡아 놓고 지랄이나, 이 오밤중까지... 암튼 고맙다. 기다려줘서...

여고생2: 고맙긴 뭘... 밤에 혼자 가는 거보단 낫잖아...

텅빈 비포장도로의 외등불을 받으며 불안하게 걸어가는 두 여고생.
카메라, 이들의 모습을 소금창고 쪽에서 조망하다 창고 옆의 전봇대 위로 부유하듯 이동한다.

여고생1: 오밤중까지 학교서 야자하고 집에 가는 길도 험한데, 땡땡이 보충이 웬 말이야, 땡땡이 보충이...!

여고생2: 그러게 말이야, 너무했어...

여고생1: 씨발, 요즘엔 교복이면 그~냥 눈이 벌게져서 침 질질 흘리는 변태 같은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고생2: 여기 어디 변태라도 숨어있는 거 아냐?

여고생1: 야! 재수 없게... 변태보단 차라리 귀신이 낫지, 어휴~ 변태는 생각만 해도...

멍칫! 여고생1을 쏘아보는 여고생2.

여고생1, 실수를 눈치챈 듯 입을 막는다.

두 여고생, 폐염전 한 가운데 멀찍이 떨어져있는 커다란 소금창고를 슬며시 본다.

시커먼 낡은 나무건물이 비를 맞고 있는 광경은 괴기스럽기까지 하다.

걸음을 재촉하는 두 여고생, 문제의 소금창고로 빠지는 길을 지나쳐 간다.

전봇대 위에는 여러 개의 라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그녀들의 머리 위를 지나가고 있다.

여고생들의 앞에는 고장 난 외등 하나가 지지직거리며 불이 깜박거리는데...

여고생들, 갑자기 걸음을 멈춘다.

전봇대 밑에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앉아 울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를 본 것.

여고생1, 아이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주며,

여고생1: 애, 너 여기서 비 맞고 뭐하는 거니? 집에 안가?

여자아이,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여고생1에게 손을 내밀어 펼친다.
손에는 공기알이 네 개 들어있다.

여고생1: 아... 공깃돌?

주위를 둘러보는 여고생1, 자신의 발밑에 하나를 발견한다.
공깃돌을 주워 올리는 여고생1, 하지만 반쪽이 나가있는 공깃돌.

여고생1: 어머, 어떡하니? 반쪽이 나갔는데?

그때야 고개를 들어 여고생1을 보는 여자아이.
하얀 눈에 새빨간 피눈물을 흘리는...!!
'헉!'하며 바닥에 주저앉은 여고생1, 고개를 돌려 친구를 찾으면...
고개를 꼭 숙이고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는 더 이상 친구의 모습이 아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우산!!
여고생1에게 점점 다가오는 두 명의 그림자!!
여고생1의 얼굴에 떨어지는 빗방울...
서서히 짙어지는 붉은 피의 비!!!
쿠궁!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울려 퍼지는 여고생1의 비명소리!
갑자기 쏟아 붓듯 거세지는 빗줄기...
그리고 그 빗줄기를 온 몸으로 맞는 시커먼 폐소금창고.

#2. 정호의 집. 밤

어두운 창밖으로 몰아치는 빗줄기들...
목조로 된 제법 운치 있어 보이는 팬션 같은 송정호(29세)의 집이다.
값비싸 보이는 실내장식으로 꾸며져 있는 원룸식 내부에서 냉장고를 여는 남자의 손,
캔맥주를 꺼내 마신다.
다소 어두운 실내라 인물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윈도우 플레이어의 기묘한 물결무늬와 함께 음습한 음악이 흐르고...
이때, '딩동'하는 알람소리와 함께 메일 도착 쪽지가 뜬다.
'오랜만이네요...'라는 제목의 메일...
자리에 앉아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는 남자.
클릭하는 남자의 손. 마우스의 달각하는 소리와 함께 메일이 열리면,

-정말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설마 저를 모른다고 하지는 않겠죠? 아래는 제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홈페이지 주소 <www.saltvillage.co.kr>에 화살표가 다가가 메일주소를 누르면,

‘민정이의 소금마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썬1의 폐염전 속에 쓸쓸히 서 있는 소금창고 사진이 뜬다.

정 호: (놀라는) 헉!!

서서히 올려 퍼지는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
그리고 그 한가운데 뜨는 메인타이틀.

타이틀: 阿娘 아랑-가제

*아랑-역올하게 살해당한 여인이 자신의 원한을 알리기 위해 원귀로 나타나 해를 끼치자 담대한 사람이 원귀를 만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설화의 주인공

배경이 사라지면, 암흑 속에 타이틀 글씨만 남고...
그 위로 찢어질 듯 스쳐지나가는 송정호의 비명소리.

정 호: (소리) 으아악~!!

타이틀마저 사라진 완전한 암흑 속에 자그마한 심장박동소리가 들려오면,
어둠 속에서 한명, 아니, 두 명 정도의 여인들의 작은 목소리가 오버 더빙되어 새어나온다.
다급하게 속삭이는... 그러면서 미세하게 떨리는 목소리...

소 리: 난,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 아무것도... 내가 느낀 건, 내 귀밀을 스치는... 거친 호흡. 바람.

#3. 소영의 방. 오전

‘헉!’하고 눈을 번쩍 뜨며 벌떡 일어나는 소영(29세).
옥탑방 하얀 커튼에는 이른 새벽의 파란 기운이 감돌고 있고...

소 영: (진정하며) 하아... 하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듯이 거친 호흡을 가다듬은 소영,
손을 들어 오른쪽 목덜미를 쓸어본다.
소영의 방은 여자 혼자 사는 방답지 않게 곳곳에는 찌그러진 맥주캔이 뒹굴고 옷가지와 속옷들이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다.
딸깍하며 침대 말의 스탠드에 불을 켜는 소영.

소 영: (머리를 짚으며) 씨발...

침대에 걸터앉아 담배를 입에 무는 소영, 치익~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인다.
길게 담배연기를 내뿜는 소영.

그제야 울리는 알람소리.
탁상시계는 오전 6시 정각.

#4. 몽타쥬. 소영의 아침

-축축한 공원 도로 위로 조깅을 하는 소영
-격투기 체육관에서 샌드백을 두드리는 소영
-샤워를 하는 소영(에로틱하지 않게...), 고개를 숙여 머리에 물을 맞으며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긴 듯하다. 보통 여성에 비해 탄탄한 근육질인 소영의 등 근육과 어깨가 어찌 보면 남자가 샤워를 하는 듯하다.

#5. 소영의 방. 오전

'탁탁탁'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하얀 백지 위에 깜빡이는 커서는 아무 글씨도 남기지 않은 채 옆으로 한 칸씩 움직이고...
담배를 물고 가만히 엮드려 앉아 화면을 응시하며 스페이스 바를 반복적으로 누르는 소영,
이내 멈추고 낮게 한숨을 쉰다.
책상위에는 온갖 종류의 소설들이 가지런히 꽂혀있고, 컴퓨터 모니터 옆에는 신춘문에 공모 내용이 프린트 되어 꽂혀있다.
이때, 삐리릭하며 책상위에 휴대폰이 울리면,
덤덤하게 전화를 받는 소영.

소 영: 네... 네... 알겠습니다.

#6. 정호의 집. 외부. 오전

씬2에 나온 정호의 집.
창틀에는 연기에 그을은 자국이 있고, 폴리스 라인 밖으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
이때, 한 승용차가 도착을 하고, 소영이 차 안에서 나온다.
의경들의 경례를 받고 라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소영.
마당에는 의경들이 땅을 파서 무언가를 묻고 있다.
정호의 집안 내부로 들어가는 소영.

#7. 정호의 집. 내부. 오전

집안 내부는 축축히 젖어 곳곳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다.
거실에 들어오는 소영.
사체 주변에서 검식을 하는 형사들과 담배를 물고 서 있는 김반장(40대 중반)의 뒷모습이 보인다.

김반장: (소영을 보고) 어, 왔나? 그동안 잘 쉬었지?

소 영: (가볍게 경례하고) 생각보다 복귀가 빠르네요... 피해자는요?

김반장: 송정호라고 29세. 소방관들이 화재진압하고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는 거야. 그나마 비가 와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은 게 다행이지...

고개를 끄덕이며 사체에 다가서는 소영, '헉!'하고 놀란다.

시커멓게 타서 일그러진 사람의 형상이 입을 벌리고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의자에 앉아있다.

이때, 뿔테 안경을 낀 한 청년(현기, 27세)이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허겁지겁 들어오다가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다.

형사들, 청년을 보고 한심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헐레벌떡 일어나 사체로 가는 현기.

소 영: (현기를 보고 김반장에게) 저 어리버리 청춘은 누구세요?

김반장: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민형사 정직된 동안 새로 배치됐어... 시경 검시계 있다가 자원해서 왔는데... 완전 신병이나 마찬가지로. 잘 좀 부탁해.

소 영: 검시계 에서요? 근데 왜 왔어요?!

김반장: 직접 물어봐. 니 파트너니까.

소 영: 네?! 아~!

소영, 현기를 보더니 한 숨을 쉬며 머리를 긁적인다.

허겁지겁 번쩍번쩍 셔터를 눌러대는 현기, 잘못해서 감식반 형사의 얼굴에 플래시가 정통으로 번쩍이고... 인상 쓰는 감식반 형사.

현 기: 죄송합니다!!

김반장, 현기에게 다가간다.

김반장: 청춘! 필름은 있나?

현 기: 앗!!

매거진을 열어보는 현기. 텅 비었다.

한숨을 쉬는 형사들.

현기, 그제야 허겁지겁 주머니에서 필름을 꺼내 로딩을 한다.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는 소영.

김반장: (감식반에게) 사인은?

감식반: (김반장에게) 글썩요... 일단 질식사일 가능성이 크지만, 사체가 너무 심하게 훼손돼서요... 부검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반장: 알았어... (현기에게) 어이, 여기 구석구석 잘 찍으라고.

현 기: (바짝 긴장하여) 네, 넷!!

구석구석 사진을 찍는 현기.
소영, 심각한 표정으로 시체를 본다.

#8. 고급호텔 웨딩홀. 낮

빠른 컷들과 함께 비디오 화면으로 화환, 신랑신부 명패, 하객, 등등의 결혼식 몽타주가 펼쳐진다.

-신부대기실-

동민신부: (동민을 보고) 남자답고, 자신감 넘치고, 믿음직스럽잖아요. 잘생겼고...//

친 구: 축하해~ 아기도 많이 낳고...//

-홀-

비디오 LCD화면에 큼지막하게 신랑(김동민, 29세)의 얼굴이 걸려있다.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은 동민의 친구 안지철(29세).

동 민: (카메라를 보며) 수빈아, 나랑 이렇게 결혼해줘서 고맙고... 우리 만남지는 별로 안됐지만, 앞으로 시간 많잖아? 행복하게... 자알~ 살아보자. 사랑해~

지 철: (버튼을 누르면서) 오케! 짜식 잘 하면서 빼긴...

이때, 이들에게 다가오는 재혁(29세).

동 민: 어, 왔나?

재 혁: 야~ 김동민, 드디어 오늘 부모님한테 허락 맞고 떡치는구나!!

동 민: (피식 웃으며) 미친새끼...

재 혁: 그래, 오늘밤을 위해 연습 좀 했어?

지 철: (동민을 가리키며) 이 새끼가 새삼 연습이 뭐 필요 있냐? 논문 써서 박사해도 되는 데...

동 민: 야... 니네, 이제 진짜 입들 조심해야한다...

재 혁: 뭐 하는 거 봐서... (지철을 보며) 그나저나, 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지 철: 어제 뮤직비디오 하나 밤새 찍어서... 좀 피곤하다.

재 혁: (음흉하게 웃으며) 딱 짓 하느라 밤샘 건 아니고?

동 민: (재혁을 보며) 하여간 꼭 다들 지 같은 줄 안다니까...

이때, 식 준비를 알리는 안내방송 소리.

동 민: 야, 시작한다. 들어가자. 실수들 하지 말고...

재혁,지철: 걱정마, 걱정마...

예식홀로 들어가는 재혁과 지철, 동민.

그들 뒤로 보이는 동민과 아내의 웨딩사진.

-cut to-

재혁: 그럼, 오늘의 주인공! 신부 입장이 있겠습니다. 신부 입장!

결혼행진곡이 울려 퍼지면, 환한 미소와 함께 입장하는 신부.

#9. 정호의 집 마당. 오후

마당에서 주민의 제보를 듣는 소영과 김반장,

주 민: 사람이 어찌나 괴팍하던지 허구헌 날 개를 때리고... 말도 못했어요.

소 영: 개요?

김반장: 현장에서 개 시체가 발견됐는데, 어제 죽은 거 같진 않고, 그 전에 한 일주일은 된 거 같더라고. 보니까 개가 이빨이 다 빠져 없고... 저기 마당에 묻으라고 시켰어...

주 민: 그래서 요즘 개짖는 소리가 안 들렸구만... 하여간 이 집 주인 이상했어요. 소문에 정신병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소 영: 혹시 최근 이집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나요?

주 민: 뭐 가끔 외제차들 몇 대 왔다 갔다 하면 이집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막 큰소리 지르고...

소 영: 어떤 사람들인지 인상착의는 모르시구요?

주 민: 그냥 또래 젊은 사람들이었던 거 같아요.

소 영: ...

#10. 예식장. 낮

재혁: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의 직장동료, 선후배, 친구 되시는 분들은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의 결혼식 현장.

웅성웅성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재혁도 서둘러 사이에 들어가고...

손짓을 하며 지철을 부르는 동민.

지철, 손사레를 치며 괜찮다는 표시를 한다.

사진사, 앞에 나가 친구들의 위치를 지시하고...

이들의 모습을 싱글싱글 웃으며 비디오에 담는 지철.

이때, 강대상 한쪽 구석 커튼 뒤에 희미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사람들을 쳐다보며 서 있는 것이 LCD화면을 통해 보인다.

춤으로 당겨 보다가 훑쳐보는 기분에 고개를 드는 지철.

희미한 검은 형체는 화환의 그림자 인 듯...

다시 LCD를 보는 지철.

사진사: 자!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평!하고 터지는 사진사의 플래시.

번쩍!하는 순간, 천천히 사람들 옆을 지나 내려오는 문제의 여인!

사진사: 한 번 더! 하나, 둘, 셋!

다시 평!하고 터지는 플래시.

순간 문제의 여인이 신랑과 신부 앞에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지철의 LCD에 스치듯 보인다!!

헉!하는 지철.

사진사: 마지막 한 번 더! 하나, 둘, 셋!

평!하는 플래시.

순간 지철의 카메라 바로 앞에서 얼굴을 들이밀고 지철을 노려보는 문제의 여인의 얼굴이 LCD에 나타난다!!

지 철: 으악!!

뒤로 주저앉는 지철.

친구들, 지철을 보고 실수로 넘어진 줄 알고 웃는다.

당황하는 지철...

#11. 경찰서 형사반. 오후

회의 중인 수사본부. 소영, 관련서류를 들고 온다.

소 영: (서류 뒤적이며) 죽은 송정호란 인물... 수상쩍은 구석이 너무 많은데요... 8년 동안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지난 일 년 동안 행방이 묘연해요.

김반장에게 서류를 넘기는 소영.

김반장: (서류를 뒤적이며) 살인?

소 영: 10년 전에 피서철 해수욕장 주변에서 동네 청년이랑 시비 붙었다가 살인을 저질렀대요. 휴양지 흔히 있는 사건들 있잖아요.

김반장: 연고자는?

박형사: 홀어머니 한 분 계셨는데 교도소에 있을 때 돌아가셨답니다. 어머니는 강남쪽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구요...

소 영: 출소 후 일년 만에 개인 주택을 소유한다는 게 좀 수상해요. 어머니가 떼돈 벌어난 것도 아닐 텐데... 화재도 방화는 아니랍니다. 누전 같다고...

김반장: 그럼, 화재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얘기잖아. 불이 나고 있는데, 의자에 그냥 앉아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현기에게) 부검은?

현 기: 사체훼손이 너무 심해서 내일이나 나온다는데요?

김반장: 그렇군...

소 영: (서류를 보며) 그리고, 송정호 병적기록 보니까 출소한 이후로 계속 심리치료를 받은 걸로 나와 있어요.

김반장: (심각한 표정) 심리치료?

#12. 심리치료원. 오후

치료사: 밤마다 악몽을 꾸다고 했어요. 깨어서도 간간히 헛것이 보인다고...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괴롭힌다는 거였어요.

안락하고 편안한 분위기의 심리치료원.

여성담당치료사와 마주 앉아있는 소영과 현기.

소 영: 괴롭힌다고요?

치료사: 머리를 풀어헤치고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찾아온다고 했어요.

현 기: 머리 풀고 검은 옷을 입었으면... 귀신이잖아요. 아니, 귀신은 흰옷인가?

치료사: (피식 웃으며) 글썩요. 그게 귀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증상을 귀신으로만 치부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죠. 저희들은 사람을 치료해야 하니까요.

소 영: 그럼, 왜 그런 환영을 보는 거죠?

치료사: 송정호씨,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임종을 보지 못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송정호씨의 어머니에 대한 죄의식이 그런 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요 며칠 연락이 없어서 상황이 호전됐나 싶었는데... 그렇게 되다니...

소 영: ...

-cut to-

치료사: 송정호씨가 최면 상태에서 그린 그림입니다.

소영에게 그림 한 장을 건네는 치료사.

그림은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자와 그 뱃속에 아기의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다.

현 기: (그림의 아기얼굴을 가리키며) 이 얼굴은 뭐죠?

치료사: 이 여자의 아이입니다. 비슷한 그림으로 '실레'의 '어머니의 죽음'이란 유명한 그림이 있죠.

화집에 있는 '실례'의 그림을 보여주는 치료사.
그림을 보고 '아~'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현기.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다르다. 뭔가 의구심이 난 듯한...

소 영: 어머니의 죽음... 근데... 꼭 이 그림과 비슷하다고 해서 송정호가 어머니를 그린 걸로 단정 지을 순 없지 않나요?

치료사: (기분 상한) 단정 짓지는 않았습니니다. 다만, 인간의 심리는 의식보단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그 무의식은 개인의 지난 환경과 잠재된 기억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소 영: 네...

고개를 끄덕이지만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림을 보는 소영.

#13. 오댕집. 밤

오댕국물 김으로 희뿌연 오댕집 내부.

곳곳에 사람들이 시끌벅적 술을 마시고 있다.

한 쪽 구석에 있는 소영과 현기.

성년의 날 인듯, 20송이 장미꽃다발을 든 어린 아이들이 유난히 많아 보인다.

약자지껄 건배하는 아이들...

소 영: (약간 취한) 예유~ 저 어린것들이 성인이라고...

현 기: 왜요? 그래도 알 건 다 아는 나일텐데...

소 영: 하긴... 그렇지? 후훗... (현기를 보며) 검시계에 있었다고?

현 기: 네...

소 영: 근데, 넌... 어쩌다가 일선으로 왔냐? 좋은 데 있다가...

현 기: 좋긴요... 처음 배치돼서 한 일 년 있었는데... 시체들이 거의 매일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좋은지...

고개를 끄덕이는 소영.

현 기: 그 죽은 사람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다가... 어쩔 땐 너무 화가 나서 미치겠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 왜, 무슨 이유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지...

술을 들이키는 현기. 소영, 현기의 잔을 채워준다.

현 기: 직접 이 손으로 그렇게 만드는 놈들을 붙잡고 싶어졌어요. 붙잡고 물어보고 싶어졌어요. 왜 그랬냐고?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잠시 침묵.

현 기: 선배님은... 어쩌다 형사가 되실 생각을 하셨어요?
소 영: 뽕뽕맞게 그건 왜 물어보냐?
현 기: 여자가 형사되기로 마음먹는 일이 흔하진 않잖아요.
소 영: 왜? 하면 안돼?
현 기: (당황) 아... 아뇨... 그냥...
소 영: (피식 웃곤 술을 들이킨다.) 찾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현 기: 누구요? (슬쩍 눈치를 보고) 첫사랑?
소 영: (한심하다는 눈빛) 첫사랑 찾으라고 형사되는 인간도 있냐?
현 기: 그런 사람 있어요.
소 영: 누구?
현 기: (씨익 웃으며) 저요.

딱! 현기의 뒤통수를 때리는 소영.

소 영: 정신 차려! (자신도 놀라) 아!... 아... 미안, 미안...

아야~하며 머리를 만지는 현기.

소 영: (싱글싱글) 흥... (표정 싸악~ 굳으며 술잔을 비운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

순간 얼굴이 굳는 현기.

소 영: 근데... 씨발, 존나 안 찾아진다...

술잔을 기울이는 소영.

침을 꿀꺽 삼키는 현기,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14. 오뎅집 앞. 밤

현기, 오뎅집 앞에서 소영을 기다리고 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 소영.

소 영: (현기를 보며) 잘 들어갈 수 있지?
현 기: 저는 괜찮은데... 선배님은 어떻게 들어가세요?
소 영: 나? 어떻게긴 임마, 잘~
현 기: 많이 드신 거 같은데...
소 영: 괜찮아. 뭐, 이정도 갖고... (현기를 쏘아보며) 너... 지금 내가 여자라고 걱정하는 거야?
현 기: (당황) 아... 아뇨... 뭐...
소 영: (현기의 엉덩이를 툭툭치며) 어이구, 기특한 것...

허걱!하는 현기, 뭐 이런 여자가 있냐는 표정.

소 영: (슬슬 걸어가며) 걱정마라~! 대한민국에서 다이다이 까서 나 이길 놈 얼마 없으니
까... 암튼 앞으로 잘해보자~!!

현 기: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영, 뒤도 안보고 번쩍 손을 들어 흔들며 준다.

그런 소영의 뒷모습을 보고 미소 짓는 현기,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인다.

후욱~ 불어낸 연기가 가로등에 비쳐 사방에 흩어진다.

머리를 굽적이며 소영의 방향과 반대편으로 걷기 시작하는 현기.

#15. 안지철의 작업실. 밤

맥주를 마시며 컴퓨터로 결혼식 비디오 편집 작업을 하는 지철.

문제의 단체사진을 찍은 장면이다.

하지만 문제의 여인이 있었던 곳에는 아무것도 찍혀있지 않다.

머리를 굽적이는 지철, 고개를 갸웃한다.

다시 편집을 시작하는 지철.

신랑, 신부가 주례사를 듣는 장면이다.

이때, Ding Dong하며 컴퓨터에서 메일 도착 알리미가 울린다.

의자를 끌어 옆자리 컴퓨터로 이동하는 지철.

메일을 클릭하면...

썸2의 문제의 홈페이지가 열린다!!

'헉!'하고 놀라며 바닥에 담배를 떨어뜨리는 지철,

이때, 어디선가 서걱서걱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책상 밑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물!!

이내 안지철의 발을 적시면...

지 철: 으... 으...

지철의 얼굴에 드리워지는 검은 그림자!!

카메라, 서서히 이동하여 지철 옆에 있는 편집기 모니터를 비추면...

모니터에서 기기각~!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클로즈업 된 신부의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지고
눈동자가 지철이 앉아있는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돌아간 눈은 부족한 듯, 옆으로 더 찢어지면서 눈동자가 지철 쪽으로 돌아간다!!

이내 들리는 지철의 처절한 비명!!

기괴한 여인의 얼굴은 사라지고, 편집모니터에 생기는 거친 노이즈 화면...

#16. 소영의 방. 밤

컴퓨터 모니터에 뜬 백지 위에 깜박이는 커서를 담배를 문 채 멍하니 응시하는 소영,

낮게 한숨을 쉰 뒤 담배를 비벼 끈다.

약간은 신경질적으로 컴퓨터를 꺼버리고 침대에 풀썩 엎어지는 소영,
팔을 뻗어 스탠드를 끈 뒤 어둠 속을 멍하니 응시한다.

F.O

#17. 경찰서 형사반. 오전

사건 개요 도면을 보는 김반장.

현기, 커피 두 잔을 들고 수사본부로 들어온다.

김반장: (커피를 받으며) 어, 땡큐~! 그래, 민형사랑은 어제 얘기 좀 많이 했어?

현 기: 네, 뭐...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현기.

김반장: (현기에게) 그 놈이 그렇게 선머슴처럼 털털거리보여도 아주 예리한 놈이야. 같이 있으면서 많이 배워두라고...

현 기: 네, 저도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근데... 반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김반장: ??

현 기: 저 오기 전에 민형사님, 정직 당한 이유가...

김반장: 어제 얘기 안했나? 직접 물어보지 그랬어. (피식 웃으며) 그게 말야...

카메라, 팬하면 한쪽의 다른 형사반원들의 취조를 받는 장면을 비춘다. 말끔하게 생긴 남자와 그 옆에 훌쩍이고 있는 여자가 한 형사에게 조사를 받고 있다.

강간남: 어유~ 전 정말 억울합니다. 이년, 이거 완전 꽃뱀이라구요, 꽃뱀!!

피해녀: (형사에게) 전 이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요!

형 사2: (남자에게) 이 사람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른다잖아!

강간남: (여자에게) 아니, 그렇게 무슨 여자가 술쳐먹고 길바닥에 디비져있으래! 그게 다 나 갖다 잡슈~하는 거 아냐?!

반대편에서 서류를 작성하던 소영.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에게 다가간다.

형 사2: 아니, 여자가 술 취해 길에서 쉬고 있으면 다 덮쳐도 되는 거야?!

강간남: 아니, 누가 길거리에서 덮쳤습니까? 다 일으켜서 내 돈 들어 여관까지 데려다주고, 편하게 쉬라고 해 준건데...

소영, 남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을 걸어 올려본다.

강간남: 뭐요?

소 영: 잠시...

형 사2: (소영을 보며) 흥터? 없어... 아까 내가 다 봤어.

소 영: (남자의 손을 내려놓으며) 실례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가는 소영.

강간남: (형사2에게) 아, 설령 길거리에서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여자에게 인상 쓰며)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이게 누구를 지금 강간범으로 몰고 있... 악!!

우당탕하며 바닥에 뒹구는 남자. 소영이 그의 의자를 발로 차버린 것...

형사들: 민형사!!

이내 수사반에 울려 퍼지는 남자의 비명소리. 소영, 무표정한 얼굴로 남자의 사타구니를 발로 집중 가격한다. 연속되는 가격에 괴로워 뒹구는 남자. 형사들, 우르르 몰려와 소영을 남자에게서 떼어낸다.

카메라, 팬하면 다시 대화를 나누고 있는 현기와 김반장이 보인다.

김반장: (허허 웃으며) 그때 다들 달라붙어 겨우 말려서 그럴지, 하마터면 교환파열까지 갈 뻔 했다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 했지... 암튼 그거 수습하느라고 고생 무자게 했어...

현 기: 흥터요?

김반장: 민형사, 여기 들어오는 남자들, 일단 무조건 손부터 검사해. 왜그런진 모르겠지만 말야... 뭐, 찾는 놈이 있데나 뭐래나.

현 기: 아, 네...

이때, 입구로 들어와 형사반으로 오는 소영.

소 영: 좋은 아침입니다!

바짝 긴장한 표정의 현기, 어색하게 웃으며 소영에게 인사한다.

소 영: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응? 무슨 일 있어요?

김반장: (실실 웃으며) 아... 아니야...

이때, 박형사, 헐레벌떡 들어오며...

박형사: 반장님!!

#18. 안지철의 작업실. 오전

번쩍! 하며 터지는 현기의 카메라 플래시.
찡찡한 표정으로 시체를 바라보는 김반장과 소영, 형사들.
감식반 형사가 시체를 검시하고 있다.
옆에서 중얼거리던 조수의 제보를 들던 박형사, 김반장에게 다가온다.

박형사: 아침에 나와 보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감식반: 사망시간은 지난 자정쯤 된 거 같은데요...

소영, 지철의 책상을 살핀다.
담배꽂초와 콜라캔을 살펴보고 비닐팩에 넣는 소영, 지철의 마우스를 살짝 건드린다.
팟! 하며 서서히 떠오르는 모니터 화면.

소영: 응?

화면에는 그림이 나오는데, 마치 한 소녀처럼 보이는 실루엣의 검은 물체가 달빛을 받으며
나무 계단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림이다.
그림을 유심히 보는 소영.

형사1: 반장님, 이것 좀 보십쇼. 서랍에서 이런 게 나왔는데요?

형사1이 보여주는 것은 한 장의 사진.
형사들, 모여서 사진을 본다.
사진은 바로 10년 전의 송정호, 안지철, 정재혁, 김동민이 나란히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
이다.

#19-1. 커피숍. 오후

얼굴을 감싸고 괴로워하는 재혁.
그의 앞에는 안지철 현장에서 발견된 4명의 친구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다.
재혁의 반대편에 앉아있는 소영과 현기.
현기, 재혁에게 담배를 건넨다.
담배를 물고 불을 붙여 길게 들이마시는 재혁.

#20. 소금창고. 밤

달빛을 받으며 어딘가 해매는 20살의 재혁, 지철, 동민.

혁,철,민: 정호야~!

그들 앞에 나타나는 소금창고.
벌컥! 문을 여는 재혁.

문 앞에는 피투성이의 정호가 멍하니 서있다!
그들을 스쳐 나오는 정호.
소금창고 안을 들여다보는 나머지 세사람.
한 청년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

#19-2. 커피숍, 오후

재 혁: 그 뒤 우리는 정호를 설득해서 자수하게 한 겁니다...

길게 담배를 내뿜는 재혁.

소 영: 저,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송정호씨, 친구 분들과 자주 다녔다고 하던데요...

재 혁: 애, 그랬죠. 녀석이 출소 후에 신경이 엄청 예민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 일과
지난 세월에 많이 아쉬워했구요. 우울증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충고라
도 하면 녀석이 그걸 끝이듣지 않고 뼈뺏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소 영: 그랬군요.

재 혁: 주변에서 그걸 보면 아마 심하게 다투는 걸로 보였겠죠...

고개를 끄덕이는 소영과 현기.

-cut to-

재혁에게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소영과 현기.

멍하니 자리에 앉아 송정호와 안지철의 사진을 보는 재혁.

뭔가 불안한 듯 조심스레 떨리는 재혁의 눈동자...

#21. 부검실

검게 탄 송정호의 시신과 기괴하게 일그러진 안지철의 시신이 나란히 누워있는 부검실.

차가운 금속 철제 침대에 누운 두시체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싱크대에 손을 씻고 나오는 부검의.

부검의: 무슨 사연들인지 모르겠는데 자네들 고생 꽤나 하게 생겼어...

소 영: 무슨 말씀인지...

부검의: 내 부검의 20년 만에 이런 시체들은 참이니까. (시체를 가리키며) 일단 둘 다 사인
은 질식사야. 이 둘이 친구사이라고 했나?

소 영: 네, 알려진 바로는요...

안지철의 시신 쪽으로 가는 부검의

부검의: 친구끼리 참... 이 무슨 꼴인지... 이 불 탄 친구는 화재 전에 이미 죽어있었어. 근

데 질식사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무슨 질식인가 했더니... 독가스에 질식한 거더라고. 청산가스...

소 영: 네?! 청산가스요?

부검의: (안지철의 사체를 가리키며) 이 친구가 가르쳐 준거야. 어제 사체는 훼손이 너무 심해서 애먹었거든...

현 기: 그럼 이 안지철도 청산가스에 질식한 건가요?

부검의: (고개를 끄덕인다.) 근데... 이 목졸린 흔적이 뭔지 잘 모르겠네... 독가스에 질식하면서 동시에 목도 졸려 질식했다는 애긴데...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운지... 게다가 이거까지 알면 아주 기가 막힐걸? 입 안이랑 코 주위 봐봐.

시체의 입과 코를 보는 소영과 현기.

현 기: 그러고 보니 미란이 없네요...

소 영: ?? 무슨 얘기야?

현 기: 독가스를 흡입하면 입이랑 코 주위에 작은 수포 같은 것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두 사체는 없어요.

부검의: 외부에서 독가스를 흡입한 게 아니야...

소 영: 그럼...

부검의: 몸속에서 발생한거야... 이게 무슨 경운지... 나도 좀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현실에선 불가능한 일이야...

황당한 표정의 소영. 입을 굳게 다무는 현기.

처참한 정호와 지철의 사체...

#22. 호텔룸. 밤

거친 호흡, 남녀의 맞잡은 손, 거칠게 흔들리는 재혁의 허리, 상기된 여인의 얼굴과 애절한 듯 한 재혁의 표정, 흐르는 땀, 움찔하는 재혁의 눈썹과 짧은 탄성...

고급 호텔 옥상층의 방이다.

퀵사이즈의 넓은 더블 침대 위에 뒤집힌 대각선 모양으로 하나가 되어 웅크리고 있는 재혁과 여인.

-cut-to-

이불을 덮고 담배를 물고 있는 재혁의 품에 안겨 누워있는 여인.

여 인: 오빠, 우리 사귄다?

재 혁: (무표정) 왜그러냐, 촌스럽게...

여 인: 내가 만난 남자 중에 오빠가 최고야. 응? 사귀자.

재 혁: (여인을 밀어내고 부스스 일어나며) 집에 안가냐?

여 인: ... 오빠도 내가 맘에 들어서 같이 한 거 아냐?

재혁, 침대에서 나와 가운을 걸친다.

재혁: (피식 웃으며) 만난 지 세 시간밖에 안 됐다. 서로 뭘 안다고 사귀자말자냐?

여인: 그럼 왜 나랑 한 거야?

재혁: 섹스는 스포츠야. 서로 기분전환 잘 하면 되는 거 아냐?

여인, 재혁을 노려보다가 벌떡 일어나 옷을 챙긴다. 냉장고에 가서 캔맥주를 꺼내는 재혁.

재혁: 맥주 한잔 해.

여인: (부라부라 나가면서) 됐어. 재수 없어.

재혁: (맥주 하나를 따서 마신다)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그래. 택시타고 갈 거지? 잘가라~

여인: 개새끼...

문을 광 닫고 나가는 여인.

인상을 쓰는 재혁, 창밖 도심의 야경을 본다.

담배에 불을 붙이고 맥주를 훌쩍이는 재혁, 깊게 한 숨을 쉰다.

이때, 테이블 위에 있는 재혁의 DMB폰에 메일 도착 알리미의 소리가 들린다.

뒤돌아 침대에 걸터앉아 핸드폰을 보는 재혁, 인터넷에 접속한다.

맥주를 훌쩍이며 담배를 물고 접속을 기다리는 재혁,

이때, 현관의 센서등이 갑자기 켜진다. 화들짝 고개를 돌리는 재혁.

하지만 현관에는 아무도 없다.

어리둥절한 재혁.

문제의 센서등은 다시 불이 꺼지고...

다시 DMB폰을 보는 재혁.

썩2의 메일과 같은 내용의 메일이 뜬다.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드는 재혁.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오는 반사된 그의 뒤에 서있는 시커먼 그림자!!

‘헉!’하며 고개를 돌리는 재혁.

하지만 그의 눈앞에는 아무도 없다.

‘후우~’하면서 DMB폰을 침대에 대충 던져놓고 화장실로 가는 재혁.

재혁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DMB폰 창에 민정의 홈페이지가 뜬다!!

#23. 호텔 욕실

샤아~하는 물소리. 꼬로록거리며 소용돌이쳐 배수구로 흘러들어가는 물.

뿌연 수증기가 가득한 욕실에서 샤워하는 재혁.

이때, 욕실 문이 삐이거걱 열리고...

빠꼼히 열린 그 문틈 사이로 재혁이 샤워를 하는 모습을 보는 누군가의 시점.

문소리를 들은 재혁, 샤워 커튼을 젖히고 문 쪽을 본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문을 열어보는 재혁.

아무도 없다.

욕실 문을 움직여 보는 재혁.
부드럽게 움직이는 문은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는다. .
고개를 가웃하면서 다시 문을 닫는 재혁.
이때! 침대 밑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물!!
다시 물을 켜고 샤워를 하는 재혁.
다시 이빨을 가는 듯 한 소리의 뿌드드득 열리는 욕실 문!!
멍칫!하는 재혁, 하지만 신경을 끄고 샤워를 계속한다.
샤워 커튼을 사이로 재혁의 실루엣을 보는 누군가의 시점!!
스르륵, 시점의 주인공은 재혁의 샤워커튼으로 다가가고... 거품을 내 머리를 감는 재혁.
서걱서걱 들리는 기이한 소리!
하지만, 샤워기의 떨어지는 물소리에 재혁은 미처 알아채지 못한다.
이때, 재혁의 손가락을 감싸는 머리카락들!! 재혁, 머리를 긁어 문제의 머리카락들을 본다.
자신의 머리카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긴 머리카락들!!
재혁, 의아해하며 천장을 보면,
자신의 머리위로 늘어진 머리카락은 천장에 붙은 채 샤워 커튼 건너편까지 연결되어 있다!!
순간적으로 반투명의 비닐커튼에 얼굴을 들이미는 어린 소녀!!

재 혁: 으악!!

커튼을 붙잡고 욕조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재혁!
드드득!하며 뜯겨나가는 비닐커튼.
쓰러진 재혁의 얼굴에 샤워기 물이 사정없이 쏟아지고...
부들부들 뭔가를 보고 겁에 질리는 재혁의 눈!
그 얼굴 위를 덮치는 검은 그림자!!
그림자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새빨간 피눈물!
피눈물은 턱에 고여 핏방울로 떨어져 재혁의 입 속으로 '치익~!'하며 흘러들어간다.
죽음의 공포로 사색이 된 재혁의 얼굴에서 스릴.

F.O

#24. 호텔룸. 오전

끼각끼각하며 잠겨지는 샤워꼭지.
물을 잠그는 사람은 김반장이다.
욕조에 쳐 박혀 기괴하게 죽은 재혁의 시체를 꿀꿀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김반장과 형사들.
현기, 시체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구석구석 사진을 찍는다.

감식반: (김반장에게) 사인은 안지철 케이스랑 똑같습니다.

재혁의 시체를 물끄러미 보는 김반장,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으며 감식반의 말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소영, 침대 위에 떨어져 있는 정재혁의 DMB폰을 들어본다.
떨리는 소영의 눈동자.
바로 폰 창에는 민정의 홈페이지 대문 화면이 떠 있다.

#25. 경찰서 형사반. 오후

전 썬의 그림이 소영의 컴퓨터 모니터로 옮겨져 오면...
컴퓨터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는 소영과 김반장.

김반장: 이게 안지철 현장이랑 정재혁 DMB폰에 떠있던 홈페이지라고?
소 영: 네...

옆에 있던 현기도 소영의 컴퓨터로 다가온다.

현 기: (사진을 보면서) 소금창고네요...

김반장: 응? 그게 소금창고야? 난 참봐서 뭐하는 덴가 했네...

현 기: 어렸을 때 잠깐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영전 있고 갯벌 있고 그런데요. 그래서 알아
요. (소영에게)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소영, 자리를 비켜주면, 현기, 자리에 앉아 마우스를 클릭한다.

사진은 한 여고생(민정, 19세)이 친구들과 밝게 웃으며 찍은 사진들과 영전과 바다를 배경
으로 누군가 찍은 듯 한 이미지 사진들이다.

김반장: 히야~ 이쁘네...

현 기: 사진 보니까 고등학생 같은데... ㅎㅎ... 남자애들한테 꽤나 인기 많겠어요.

현기의 상기된 표정에 피식 웃는 소영.

흥피를 보던 현기, 민정이 적어놓은 듯한 글귀를 읽는다.

현 기: (소리) 민정이는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얗고 순결하게... 그리고 남
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 누군지 몰라도 참 착한학생이네요.

고개를 돌려 소영을 보는 현기.

현 기: (소영을 보며) 선배님도... 이런 시절이 있었죠?

소 영: 어? 어, 어...

씨익 미소를 지으며 다시 모니터를 보는 현기.

그런 현기의 옆모습을 보는 소영.

소영의 입가에 번지는 미소.

그러나 이내 그 미소는 씩씩한 표정으로 변한다.

마우스를 클릭 하는 현기.

이내 모니터에 뜨는 그림.

살짝 찡그려지는 현기의 표정.

안지철 현장에도 있던 그림인데, 자세히 보면 그림속의 소녀 그림자의 위치가 변해있다!
고개를 가웃하는 소영,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아채지 못한다.

김반장: (현기의 표정을 보고) 뭐야? (모니터 그림을 보며) 이 그림 제목이 '엄마와 딸'이야?
여자에 혼자 있는데?

소 영: 엄마와... 딸?

의미심장하게 그림을 보는 형사들의 표정.

컴퓨터 모니터에 떠있는 민정의 그림. '엄마와 딸'...

#26. 소금마을 입구. 낮

소금마을 진입로로 들어서는 소영의 차.

이내 소영의 눈에 들어오는 폐염전의 황량한 광경.

이때 울리는 소영의 핸드폰.

소 영: (전화 받으며) 어, 이형사, 조사해봤어?

현 기: (소리) 네, 근데 좀 이상해요... 그 홈페이지 주인 말이에요. 9년 전에 실종처리된
사람이네요.

소 영: (끼이익 차를 세우는) 뭐?!!

-Insert-

형사반 책상 앞에 앉아 민정의 홈페이지 방명록을 보는 현기.

방명록에는 몇 개의 글만이 보이는 데, 모두 광고성 글들이다.

현 기: (휴대폰을 들고) 여기 홈페이지에서도 관련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소금마을 입구.

소 영: ... 알았어. 내가 여기서 함 알아볼게.

전화를 옆자리에 던져놓는 소영.

옆 차창에 보이는 흉물스런 소금창고가 눈에 들어온다.

낡은 목조건물이 으스스하니 서있는 썩은 나무로 만들어진 폐소금창고...

소영, 차를 다시 출발한다.

#27. 소금마을 파출소. 낮

순 경: 여기, 찾았습니다.

조그마한 시골마을에 의례 어울릴법한 인상 좋은 순경이 서류뭉치를 들고 나온다. 그 작은 파출소는 범죄 없는 마을의 파출소 같이 작고 아담하고 평온한 분위기다. 순경은 들고 나온 서류뭉치를 테이블에 앉아있는 소영에게 보여준다.

순 경: (서류를 보여주며) 사진 보니까 인물이 보통이 아닌 게, 가출해서 아마 도심지로 나갔을 겁니다. 여기 시골에 그런 아가씨들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봤는데 그때 담당 형사가 지금 우리 파출소 소장님이예요.

소 영: 그래요? 그럼 소장님 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조소장: (입구에서 들어서며) 내가 여기 파출소장인데...

소영, 고개를 돌리면, 50대의 중년 경찰관(조정남, 50대)이 소영에게 다가온다.

조소장: 무슨... 일로?

소 영: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한다.) 서울 강남서의 민소영입니다. 9년 전에 실종된 김민정이라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조소장: 김민정?... 아... 김민정...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무는 조소장.

#28. 엄전 마을길. 낮

한적하니 바다를 가로지르는 고기잡이배와 그물을 다듬는 어부들, 잡은 고기를 다루는 어촌 아낙들의 모습 등, 평온한 해안가 마을 풍경이 펼쳐진다.

그 위로 흐르는 조소장의 목소리.

조소장: (소리) 특별히 자세히 기억나는 건 없어. 지금 기억나는 건 그저 그 집이 참 안됐다는 생각 정도? 원래 이 동네야 애들 아빠들이 배타고 나가 실종되고 죽고 하는 일들이 많은 편이지만 그 집은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

소영, 지나가는 마을 주민 아낙에게 길을 물어본다.

손짓으로 길을 가르쳐주는 아낙.

#29-1. 민정의 집. 낮

빈집이 된지 꽤 오래된 듯한 폐가. 삐거덕, 녹슨 철제문을 여는 소영.

다 떨어진 문짝과 곳곳에 널려진 쓰레기들, 그리고 아이들이 낙서를 해놓은 듯한 글씨들과 굴러다니는 술병들이 작고 아담한 시골집의 모습을 흉물스럽게 만들어 놓고 있다.

계속되는 조소장의 목소리.

조소장: (소리) 그 집 엄마가 일찍 가출을 해서 아버지 밖에 없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만 바다에서 실종이 됐어. 그래서 그 애랑 그 애 할머니 단 둘이 살았는데... 개마저 실종되고선 할머니가 얼마 지나지 않아 죽어버렸거든... 집안이 아주 풍비박산이 난거야. 말 그대로 풍비박산...

조심스럽게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소영.

시골부엌의 가제도구들이 상당부분 남아 아무렇게나 널려져있고 오래된 이불들이 구석에서 뒹굴고 있다.

이때, 소영의 뒤를 휘익! 스치는 검은 그림자!!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소영, 민정의 방이었는데...

하지만, 텅 빈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이때, 한쪽 구석 어둠 속에서 소영을 보는 누군가의 시선!

시선은 스물스물 소영에게 다가가고...!

소영을 향해 뻗치는 손!!

소영, 김새를 채고 재빨리 총을 꺼내 뒤로 돌아 겨눈다.

깜짝 놀라 구석에 바짝 붙는 여인.

수 진: (놀란 표정, 소영에게) 누구... 세요?

#30. 수진의 증언. 과거

수진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민정의 모습들이 펼쳐진다.

수 진: (소리) 민정이랑은 고등학교때 동창이었어요...

-고등학교 미술반에서 '성모와 아기예수' 그림을 그리는 민정.

수 진: (소리) 민정이...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바다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민정.

수 진: (소리) 아버지 갑자기 돌아가시고 생활이 힘들어지자 민정이는 진학을 포기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때 아버지 대신 민정이 옆에 있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박준호라고... 민정이의 남자친구요.

-바다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민정의 옆에 다가가 앉는 준호, 민정을 조용히 안아준다.
준호를 보자 눈물을 훔치고 미소 짓는 민정. 그런 민정을 보고 미소 짓는 준호.

수 진: (소리) 둘이 참 잘 어울렸었는데... 정말 안됐죠. 그때 그 일만 아니었더라면...

#29-2. 민정의 집. 오후

소 영: 그... 일이라면?

민정의 집 대청마루. 수진에게 질문을 하는 소영.

수 진: 모르셨어요? 준호, 살해당한 거...

소 영: (뭔가 느끼는) !!

수 진: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름에... 피서 왔던 재수생들이랑 싸웠는데요. 재수생들 중에 이 곳 출신애가 있었는데... 송정호라고... 개가 준호를 죽였어요.

소 영: 송정호가 살해한 사람이 민정씨 애인이라 말인가요?!

수 진: 네...

굳게 입술을 다무는 소영.

수 진: 그 후로 민정이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했다기보다... 좀 이상해졌어요. 그 밝던 애가 웃음이 사라지고, 사람들도 잘 안 만날라고 그러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동창들 사이에선 민정이가 자살했을거란 소문이 돌기도 했죠...

소 영: 자살이요?

수 진: 네. 근데... 민정, 성당 다녔어요. 정말 독실하게... 그런 애가 자살을 했을지는...

소 영: !!

#31. 성당 내부. 늦은 오후

늦은 오후의 햇살이 스테인글라스를 더욱 예쁘게 비춰주는 시골마을의 작은 성당.

가운데 통로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소영, 정면 십자가의 예수상을 본다.

위층 성가대 석에는 여성 중창단의 연습이 한창이다.

이때, 고해실에서 한 여인이 나오다 소영을 보고 얼굴을 가리며 부리나케 밖으로 나간다.

뒤이어 고해실에서 한 신부가 나오고...

-cut to-

성당 한 쪽에 썬 29에서 민정이 그린 성모와 아기예수 그림을 보는 소영과 신부.

신 부: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걸로 달래곤 했죠... 저도 꼭 한 번 만나보고 싶네요...

소 영: 그럼 신부님도 그동안 한번도 민정씨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건가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신부,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런 신부의 표정을 보는 소영.

소 영: 고해를... 했었군요.

조용히 눈을 뜨는 신부.

소 영 부탁입니다.

신 부: ... 죄송합니다. 고해내용을 말할 순 없습니다.

소 영: 사람이 벌써 세 명이나 죽었어요.

신 부: 사람이 나고 죽는 건 모두 하느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죽는다고 사라지는 건 아니지요. 모두 존재한다는 영역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하느님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소 영: ...

신 부: 그리고, 제가 들은 것은 형사님의 수사에 그리 큰 도움이 못될 겁니다. 그것 밖에는 말씀드릴 수 없겠네요. 그럼...

자리를 떠나는 신부.

허탈하게 자리에 앉는 소영.

여성 중창단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소영, 고개를 돌려 건너편 자리를 보면, 울면서 기도하는 민정의 환영이 보인다...

괴로운 듯 얼굴을 감싸 쥐는 소영.

#32. 폐염전가 도로. 늦은 오후

차를 운전하면서 드문드문 떨어져있는 소금창고들을 보는 소영,

도로변에 하교하는 여고생들을 본다.

차를 학생들 옆에 정차시키는 소영.

소 영: (여고생들에게) 애들아, 잠깐.

걸음을 멈추는 여고생들.

소영, 프린트한 민정의 홈페이지 대문사진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소 영: 너희들 이 소금창고가 어디 있는지 아니?

울망졸망 모여 사진을 보는 여고생들, 이내 화들짝 표정들이 굳는다.

“거기야?” “어, 여기 맞아.” 등등 속덕대는 여고생들.

소 영: (아이들 표정을 보고) 왜 그래? 무슨 문제 있어?

곤란해 하는 여고생들, 원가를 말하려는 데 서로 미루는 듯 하다.

여고생1: 여기는... 왜요?

소 영: 어, 언니가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거 같아서...

“웬일이야, 웬일이야” 등등 다시 숙덕대는 여고생들.

소 영: 왜들... 그러는 거야?

여고생2: (폭로하듯) 실은... 여기 귀신 나온다고 소문난 데예요.

소 영: !!

여고생3: 저번 주에도 어떤 애가 학교에서 집에 가다 이 옆에 귀신보고 기절했데요. 근데
개는 친구랑 같이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사실 같이 지나간 그 친구는 그 날 결석
해서 집에 있었데요.

여고생4: 귀신 본 애, 개는 지금 완전히 미쳐서 정신병원 갔데요. 진짜래요.

소 영: !!

-cut to-

민정의 소금창고 앞에선 소영.

오래된 낡은 창고 벽에는 여기저기 찢겨진 갑배 천이 너털너털 달라붙어있다.

굳게 닫힌 문은 커다란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져 있는데...

소영, 부서진 나무 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다.

하지만 캄캄한 내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창고내부에서 나무 틈들 사이로 주위를 훑어보는 소영을 보는 누군가의 시점!!

F.O

#33. 소영의 꿈.

헉헉거리며 어두운 밤골목을 뛰어가는 누군가의 발!

그 발을 쫓아가는 누군가의 시점!

쫓기는 사람은 가방을 맨 한 여고생(18세), 바로 소영의 고교시절 모습이다.

막다른 길에 이르자 옆에 있는 건물 공사현장으로 도망가는 소영.

소영, 공사 중인 계단을 올라가다 그만 쇠파이프에 걸려 넘어지고...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자, 그녀를 향해 스물스물 계단을 기어 올라온다!!

어린소영: (겁에 질린) 아... 아...

그림자, 갑자기 덮치면서 달빛에 얼굴이 드러나면...

기괴한 얼굴의...!!!

눈을 질끈 감는 소영.

갑자기 화면 암전하면,

소 리: 난...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 아무것도... 내가 느낀 건...

내 귀밀을 스치는... 거친 호흡. 바람.

#34. 소영의 방. 오전

소 영: 헉!

눈을 번쩍 뜨며 벌떡 일어나는 소영.
하얀 커튼에는 이른 새벽의 파란 기운이 감돌고 있고...

#35. 동민의 아파트. 오전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동민. 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 내: (소리) 오빠 서둘러라~ 늦겠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는 동민.

동 민: 괜찮아. 아직 안 늦어~

동민, 관물함을 열어 조그만 약통을 꺼내 약을 꺼낸다.
약을 입에 털어 넣고 약통이 빈 것을 확인하고 쓰레기통에 던져 넣는 동민.

-cut to-

현관으로 나오는 동민. 그의 아내가 그를 배웅한다.

동 민: 다녀올게...

가볍게 뽀뽀를 하고 나오는 동민, 엘리베이터를 향한다.

-cut to-

열리는 엘리베이터 문. 안에는 아무도 없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는 동민.
아래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4층에 도착하자 멈춘다.
스르르 문이 열리지만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
달함 버튼을 누르고, 피곤한지 눈가를 문지르는 동민.
그때, 엘리베이터의 스테인리스 문이 서서히 닫히면서 동민의 어깨 너머에 8살 가량의 어린 소녀가 비친다!
동민과 소녀의 희뿌옇게 일그러진 모습!

-cut to-

1층에 도착하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동민이 나온다.
팅빈 엘리베이터...
하지만, 문이 닫히려하다가 다시 열렸다 닫힌다.

#36. 경찰서 형사반. 오전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김반장과 소영, 현기.
민정의 홈페이지에 실린 민정의 사진들을 본다.

김반장: 그럼 이 사진들이 10년 전 사진들이란 말야? 근데, 그때는 이런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같은 건 없었을 거 아냐.

현 기: 그래서 조사해 봤더니, 1년 전에 개설된 홈페이지더라고요. 방명록 보니까 몇 개월 전부터 쓴 글들이 올라와 있긴 한데, 홈페이지 주인과 관련된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1년치 서버 관리비를 미리 다 지불해서 이제 좀 있으면 기간 만료돼서 홈페이지 없어질 거라고 합니다.

김반장: 그래? 그럼 일단 이 홈페이지부터 계속 살려두고, 이 인물 소재 파악부터 해야겠는데...

이때, 박형사, 정재혁과 같이 호텔에 있던 여인을 데리고 들어온다.

박형사: 반장님, 용의자 소환했는데요.

#37. 경찰서 조사실. 오전

수사본부의 조사실. 소영과 김반장, 병~하니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맞은편에는 재혁의 호텔을 나왔던 여인이 훌쩍거리고 앉아있다.

김반장: (당황) 어떻게 그럴 수... 아니... 하~ 이거 뭐라고 물어야 되나?

소 영: (웃으며) 어디가 맘에 들었어요?

여 인: 그냥... 처음 보고 끌렸어요. 스타일도 좋고, 말도 잘하고, 매너 있고...

소 영: (김반장에게) 반장님, 잠시 둘만 얘기 할 수 있을까요?

김반장: (당황) 어, 어... 그럴까?

조사실을 나오는 김반장, 창을 통해 소영과 여인이 얘기하는 모습을 본다.

김반장 옆에 현기가 다가온다.

현 기: 왜 나오셨어요?

김반장: (창을 보며) 이형사,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냥 만나자마자 그렇게 쉽게 잠자리를 같이 하나?

현 기: 저 여자가 그랬대요? (피식 웃으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방금 공항에서 연락 왔는데, 김동민이 어제부로 입국했다고 합니다.

김반장: 그래? 알았어...

이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여인과 소영이 나온다. 여인, 소영에게 꾸벅 인사하고 간다.
가볍게 인사를 받는 소영. 김반장, 현기, 소영, 나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며,

소 영: (김반장에게) 혐의점은 발견하지 못했어요, 아무튼 저 여자는 깨끗해요.

김반장: (표정 일그러지며) 깨끗해?

소 영: 네. 알리바이도 확실하고, 특히 안지철 부분에선 완전무결하구요... (김반장의 표정을 보며) 왜요?

김반장: 아니, 그... 깨끗하다고 하니까 왜, 그... (현기를 보며) 허허허...

소 영: (발끈) 여자도 사람이예요. 남자랑 똑같이 욕구도 있고 사랑도 찾고 만들고 싶고 그런거라구요. 그게 이상해요?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여잔가요?

당황하는 김반장과 현기.

형사반 자리로 이동하는 소영.

김반장: (소영을 따라가며) 아니, 내 얘기는...

소 영: 깨끗하고 더럽고... 그거 남자들 자기들 생각이죠. 여자를 똑같은 사람으로 안 보니까... 남자들, 여자를 딱 두 부류로 나눈다면서요. 어머니...

소영, 책상에 쿵하며 서류뭉치를 올려놓는다.

소 영: 아니면 창녀...

김반장, 나름대로 흥분한다.

김반장: 그래도 만난 지 3시간은 너무하잖아...

소 영: 왜요? 남자들은 돈으로도 사잖아요. (당황하는 김반장을 보고 피식 웃으며) 아까 같은 친구들 얼마 안 돼요. 아직 어려서 장사하는 사람들 말에 속아서 그렇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니 풀리는 데로 해라~

현기, 소영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소 영: (서류 정리하며) 나이 먹어가면서 사람 사이 관계에 대한 책임은 어떤 식으로든 다 돌아간다는 걸 천천히 알아가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자기들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 죽을 때 까지 평생 안고 살아갈 테니까...

김반장, 아무 말 하지 못한다.

이들 셋 사이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

현 기: 저, 반장님... 김동민이...

김반장: (화들짝) 어어.. 그래, 김동민. 가서 만나보고 와.
소영, 현기: 넷!!

#38. 종합병원. 동민의 진찰실. 오후

동민, 창 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있다.
똑똑똑 진찰실 문을 두드리는 노크소리.

동 민: 누구... 세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소영과 현기.

-cut to-

동 민: (망연자실) 어떻게... 그럴 수가...

동민의 책상에는 안지철 현장에서 발견된 4명의 친구 사진이 놓여있다.

소 영: 친구 분들을 그렇게 갑자기 잃어서서 괴로우시겠지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현기, 동민의 책장에 꽂혀있는 한 전문서적을 발견한다.

제목은 '아쿠아토파나-그 환각과 죽음의 실체'...

책을 쓴 저자는 김동민이다.

책을 꺼내 들춰보는 현기.

소 영: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송정호씨 계좌에 친구 세분이서 거액을 입금하셨던데...

동 민: 물론 사고는 정호가 쳤지만, 같이 갔던 친구들로서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소 영: 수억대 주택을 구입할 정도라면...

동 민: 죄송하지만 저희에겐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현 기: (책을 보이며) 이게 모차르트가 독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수아비산 인가요?

소 영: (책을 보며) 아쿠아토파나?

동 민: 아, 그 책을 보셨군요. 예전에 학교에 다닐 때, 독성물질 치료에 대한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걸로 학위를 받았구요... 그 책은 최근에 논문을 다시 책으로 낸 겁니다.

소 영: 아... 그렇군요. 저... 혹시, 송정호씨가 살아있을 때, 심리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나요?

동 민: 그랬나요? 몰랐습니다. 녀석이 출소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건 알았는데...

소 영: 무슨 검은 옷을 입은 여자애기 같은 거 하지 않던가요?

동 민: 검은 옷을 입은 여자요? 글썄요...

이때, 간호사가 들어와,

간호사: 선생님, 예약 환자분 오셨습니다.

동 민: 아, 들어오시라고 해요. (소영과 현기에게) 진료시간인데, 그만 돌아가 주셔야겠습니다.

소 영: 아, 네... (현기에게) 여긴 일단 정리할까?

현 기: 네...

동민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현기.

나가는 소영과 현기를 스치는 환자, 동민에게 꾸벅 인사하며 의자에 앉는다.

동 민: (환자에게) 차도가 없으세요? 식사는 꼭꼭 씹어 드셨구요?

환 자: 글썸 최대한 꼭꼭 씹어 먹을라고 했는데... 이놈의 이빨 때문에...

동 민: 만성 소화불량은 말이죠...

문을 닫고 나가는 소영과 현기.

#39. 차 안. 오후

도심을 달리는 차 안의 소영과 현기.

현 기: (운전하며) 뭔가 수상해요. 피해자들... 모두 독극물에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소 영: 글썸... 만약 김동민이 범인이라면... 왜 친구들을 죽이려한 걸까?

현 기: 협박을 받고 있던 게 아닐까요?

소 영: 협박이라... 그럴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말야, 송정호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 안지철과 정재혁은 설명이 안 되잖아.

현 기: 그렇긴 하죠.

소 영: 문제는 10년 전 사건이야. 뭔가 숨겨져 있는 거 같아...

현 기: (고개를 끄덕이다가) 근데, 아까 그 검은 옷을 입은 여자는 왜 물어보셨어요?

소 영: ... (현기를 보며) 실은, 나... 그 소금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

현 기: 소문이라니요?

소 영: 그 마을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그 귀신이 김민정 홈페이지에 나오는 소금창고에 있다는...

현 기: (피식 웃으며) 그럼 김민정이 귀신이 돼서 사람들을 죽였다는 건가요?

소 영: (기분 상한) 아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소문이 난 이유가 수상하다는 거지...! 아무튼, 이번 사건... 뭔가 짚짚해... 깊은 원한 같은 게 숨겨져 있는 거 같아.

현 기: 이럴 땐 차라리 제가 귀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사람들 속을 다 들여다 볼 거 아녜요? 속에 감춘 진실들 죄다...

소 영: (뭔가 번뜩이는) 속에... 감춘 진실?

-Flash back-

40씨의, 동민과 환자의 대화내용.

동 민: 식사는 꼭꼭 씹어 드셨는데요?

환 자: 글썸 최대한 꼭꼭 씹어 먹을라고 했는데... 이놈의 이빨 때문에...

9씨의,

김반장: 보니까 개가 이빨이 다 빠져 없고... 저기 마당에 묻으라고 시켰어...

다시 차 안.

소 영: 차 돌려!

현 기: 왜요?

소 영: 일단 차 돌려봐! 가볼 데가 있어!

끼이익~! 차를 돌리는 현기.

#40. 송정호의 집 마당. 해질녘

파헤쳐진 흙더미를 내려다보고 있는 소영과 현기.

옆에 삽을 꽂아두고 묻어둔 개의 사체를 발견한 순간이다.

악취에 얼굴을 찌푸리는 현기.

소영,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다.

소 영: 왜 죽은 송정호는 개의 이빨을 모두 뽑았을까?

현 기: 글썸요... 자꾸 물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소 영: 그럼... 반대로 생각해볼까? 뭔가를 몰지 못하게 하려 한 거라면...

영문을 모르는 현기.

소영, 불쑥 구덩이에 뛰어들어 썩을 데로 썩은 개의 입을 벌려본다.

이빨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소 영: (현기에게) 칼 좀 줘봐.

현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준다.

소영, 칼을 받아 개의 복부를 가른다.

오만 인상을 쓰는 현기.

소영은 의외로 침착하다.

가른 복부에 손을 쑥 넣어 휘저어보는 소영.

현기, 소영의 그런 모습에 아연실색하는데...

소 영: (뭔가 찾은 듯) !!

현 기: (소영의 표정을 보고) 뭐가 있어요?

소영, 개의 복부에서 작게 돌돌 말린 비닐봉치를 꺼낸다.

소 영: 이게 뭐지?

현 기: (비닐을 유심히 보며) 6미리 비디오테이프 같은데요? 케이스를 제거한...

소 영: (오물 묻은 손으로 현기 머리를 쓰다듬으며) 잘했어!!

현 기: ?? 으악!!

비닐봉치를 챙겨 앞서가는 소영.

현기, 툭툭거리며 따라간다.

#41. 주유소, 저녁

주유를 하는 동민의 차.

주유원: (주유구를 달으며) 다 끝났습니다.

카드 명세서에 싸인을 하는 동민.

부우웅~하며 옆에 있는 자동 세차기로 들어선다.

시동을 끄고 앉아있는 동민.

이내 동민의 차 주위를 둘러싸기 시작하는 자동 세차 걸레들.

온통 주위가 컴컴해지는 가운데...

전면 유리창에 쏟아져 내려오는 물줄기들.

와이퍼를 쓰윽 움직이는 동민.

이때, 얼핏 차 앞에 서있는 한 8세 가량의 소녀!

동민, 자신의 눈을 의심한다.

다시 쏟아지는 물줄기들.

다시 와이퍼를 움직이는 동민.

순간 차창에 얼굴을 들이대고 동민을 노려보는 소녀의 얼굴!!

동 민: 헉!!

소녀의 얼굴은 거센 물줄기와 함께 사라지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동민.

하지만 소녀의 모습은 없고, 그의 차 주위를 거칠게 움직이는 걸레들만 보일 뿐이다.

이내 세차가 끝나면...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만지는 동민.

뒷좌석에서 문제의 소녀가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는 것이 보인다!!

‘헉!’하며 고개를 돌리는 동민.

하지만 소녀는 보이지 않고 동민의 하얀 와이셔츠와 검은 정장 옷깃만이 있을 뿐이다.

한숨을 쉬고 피식 웃는 동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뒤 차를 출발시킨다.

#42-1. 경찰서 시사실

컴컴한 실내에 자욱한 담배연기.

빔프로젝터가 원추형의 빛을 뿜어내고 있다.

심각하게 앉아 비디오 영상을 보는 김반장과 소영, 현기, 박형사들...

화면은 여름 피서를 온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 네 명이 신나게 떠들고 장난치는 장면 들이다.

#43. 비디오 화면 시퀀스

야호! 하며 물에 뛰어드는 스무살의 동민, 재혁, 정호...

카메라가 오가는 듯, 흔들리는 화면 속에 지철의 모습도 보인다.

해변가로 놀러간 스무살의 청춘들의 장난치며 노는 모습이 화면에 보인다.

-cut to-

갑자기 노출부족의 어둡고 거친 화면이 나온다.

차 안에서 불을 꺼놓고 양주를 돌려마시고 있는 듯한 상황이다.

양주를 병나발 불고 있는 동민.

어린재혁: (동민에게) 야, 씨발 고만 마시고 이리 좀 줘봐.

동민, 재혁에게 양주병을 건네면 재혁도 병나발을 분다.

어린지철: (허가 꼬인) 와, 씨발. 우리 끈대가 즐라 아끼는 거, 여기서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 알면, 기절하겠다. ㅋㅋㅋ

어린정호: 야, 조용조용. 왔어왔어...

이내, 비디오카메라에 비치는 민정의 모습.

폐영전가 비포장도로 전봇대 밑에서 외등 불빛을 받으며 원가를 기다리는 듯하다.

(오프닝에 여고생이 귀신을 본 그 전봇대 밑이다.)

차가 스르르 민정에게 다가가는 가 싶더니,

차 안에서 정호와 재혁이 뛰쳐나가 민정을 붙잡아 차에 태운다!

스크린에는 입을 막힌 채, 목에 칼이 대어져 신음을 내는 민정의 겁에 질린 얼굴이 클로즈업 된다.

-cut to-

이어 벌어지는 문제의 영상!

소금더미 위에 던져지는 민정.

비명을 지르며 반항을 하지만 혈기왕성한 젊은 네 남자를 상대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거칠게 흔들리는 카메라.
허리띠를 푸는 정호, 민정의 치마와 상의를 걸어 올리고...

#42-2. 경찰서 시사실.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돌리는 소영.
그런 소영의 귀를 때리는 민정의 비명소리와 악다구니치는 악마들의 목소리들!!
힘들게 눈을 떠보는 소영,
눈시울이 어느새 붉어졌지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이를 악 문다.
주먹을 쥔 손은 바르르 떨리기 시작하고...
흔들거리는 민정의 어깨, 까닥거리는 민정의 머리, 순서를 바꾸는 악마들, 눈물과 통곡으로
일그러지는 민정의 표정, 담배를 물고 실실 웃는 악마들의 얼굴, 얼굴들...
소영, 도저히 참을 수 없겠는지 눈을 질끈 감는다. 이때,

스크린: 뭐하는 거야!!

비디오카메라, 소금창고 입구 쪽으로 팬하면서 준호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때, 카메라, 거칠게 흔들리더니 바닥에 떨어지면서 화면이 꺼진다.
암전이 되면서 컴컴해진 시사실 내부.
어둠 속에서 슬그머니 나가는 소영.
시사실 불을 켜는 현기.
모두 한 동안 말이 없다.
현기, 소영을 따라 시사실을 나간다.

#44. 경찰서 화장실. 밤

세수를 하는 소영, 거울을 보다 자신의 목덜미를 어루만진다.
울컥 쏟아져 나오는 눈물.
아랫입술을 꼭 깨물어보지만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버리는 소영... 억지로 입을 막아 소리를 죽인다.
화장실 문을 타고 흘러나오는 소영의 울음소리.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현기. 침울한 표정이다.

#45. 동민의 아파트. 침실. 밤

침대에 누워있는 동민과 동민아내.
아내는 깊이 잠이 든 모양이나, 동민은 눈을 말뚱말뚱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뭔가 고민이 있는 듯, 수심에 가득 찬 동민의 표정...
동민, 옆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고 슬며시 침대를 빠져나온다.

#46. 동민의 아파트. 서재. 밤

서재 책상에 앉아있는 동민, 안지철이 갖고 있던 4명의 사진과 같은 사진을 보고 있다.

고민에 빠진 듯 심각한 표정...

사진 속 송정호의 얼굴을 유심히 보는 동민.

이때, 스크린 세이버가 걸어지면서 알람소리와 함께 메일 도착 쪽지가 뜬다.

“안녕, 오랜만이야”라는 제목의 메일을 클릭하는 동민.

이내 모니터 가득 펼쳐지는 민정의 홈페이지!!

허공에 부유한 듯 떠있는 시점 샷. 홈페이지를 열어보는 동민의 모습을 조망하는...

동 민: (소금창고를 보고 놀라는) 이... 이걸... 설마...

재빨리 인터넷 창을 닫아버리는 동민, 주변을 두리번거린다.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동민,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이때, 어디선가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당황하는 동민, 소리 나는 쪽으로 살짝 눈을 돌려본다.

책상 한 쪽 귀퉁이로 스물스물 기어올라오는 손!

‘헉!’하는 동민, 슬슬 의자를 밀어 책상에서 멀어진다.

이내 책상 밑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물!

흠칫! 아래를 내려보는 동민의 다리를 붙잡는 손!!

8살가량의 작은 소녀다!

동민의 두 다리를 붙잡은 뒤 고개를 짓히는 소녀!

동민을 노려보는 소녀의 빨간 눈동자!!

동 민: 으악!!

이때, 동민의 어깨에 누군가 손을 올리고...

화들짝! 놀라는 동민, 고개를 돌리면,

그의 아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동민을 바라본다.

아 내: (걱정스런 표정으로) 오빠, 왜 그래? 어디 아파?

계속해서 떨고 있는 동민. 눈앞의 아내마저 의심스러운 듯...

동민의 얼굴을 감싸 쥐는 아내.

동민,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다.

숨을 고르는 동민.

아 내: 오빠, 걱정이야... 여행 갔다 와선 몸이 너무 안 좋아진 것 같애...

동 민: 요즘 좀 신경 쓸 일이 있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지겠지...

동민을 안아주는 동민의 아내.

잔뜩 겁에 질린 동민의 표정.

F.O

#47. 김동민의 아파트 현관. 오전

아직 출근 시간이 안 된 이른 아침의 아파트 정경.
초인종을 누르는 소영과 현기.
하지만 안에선 묵묵부답이다.
답답한 듯, 소영, 문을 쿵쿵 쳐본다.
여전히 인기척이 없다.

#48. 국도. 동민 차 안. 오전

국도변의 한적한 길을 달리는 동민과 아내.
심각한 표정의 동민.

아 내: 얘기는 다 하고 온 거 맞아?
동 민: 다 얘기 했다니까 그러네!!
아 내: 알았어... 왜 짜증을 내고 그러냐?
동 민: 나, 피곤해. 자꾸 신경쓰이게 만들면 두고 간다...
아 내: 알았어, 알았어...

뽀로통해지는 아내. 어디론가 질주하는 동민의 차.
잔뜩 긴장한 표정의 동민, 안색이 썩 좋지 않다.
아내의 눈치를 보는 동민, 이내 미안한 듯, 표정을 풀고 말을 건넨다.

동 민: 여행 갔다가 중간에 왔잖아. 신혼여행이다 생각하고 맘 편하게 생각해... 응?
아 내: (동민의 눈치를 본 뒤 표정 풀고) 알았어...

아내, 차창을 열어 바람을 쐬다.

아 내: 아... 시원해. 바다 보고 싶다...
동 민: 그럼 바다로 갈까?
아 내: 됐네요. 오빠, 바다 싫어하잖아. 그냥 가기로 한 데 가...

동민 아내, 얼굴을 차창 쪽으로 돌려 바람을 만끽한다.
바람에 나부끼는 아내의 긴 머리카락.
창 쪽으로 고개를 돌린 아내의 뒤통수 머리카락 사이로 일그러진 얼굴의 여자 정면 얼굴이 보인다!
머리를 나부끼며 동민을 노려보는 여자...

#49. 펜션. 오후

펜션 내부에 들어서는데 동민과 동민 아내.

아 내: 어머... 이쁘다. 좋다. 그치?

동 민: 어... 그래...

주방으로 가는 동민 아내, 냉장고를 열어본다.

아 내: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장 좀 보고 오는 건데... 오빠는 좀 쉬고 있어. 내가 갔다 올게.

동 민: 그래, 알았어...

아내에게 차 키를 건네는 동민.

아내, 키를 받아 밖으로 나간다.

계단 위로 올라가 침실로 가는 동민, 침대에 털썩 걸터앉는다.

골똘히 뭔가 생각하는 동민,

-Insert-

찰싹이며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는 파도를 향해 달려가는 어린 동민과 지철, 재혁, 정호.

지철은 캠코더를 들고 이들의 모습을 찍는다.

물장난을 치던 동민, 방파제 쪽을 보면, 바다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는... 민정을 본다.

민정의 미소에 넋을 잃는 어린동민.

동민의 시선을 따라 일제히 시선이 민정에게 꽂히는 일당들...

민정을 보는 이들의 음흉한 눈빛...

다시 펜션 방.

이내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는 동민, 뒤로 풀썩 드러눕는다...

#50. 아파트 주차장.

차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소영과 현기.

현 기: 후우... 이렇게 수색영장 나올 때까지 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요?

소 영: 얼마나 기다렸다고 벌써 몸을 꼬고 그래? 다시 검시계로 가고 싶지? 후회 돼?

현 기: 아니요. 딱 내 스타일인데요. 견딜 만 해요.

그러면서도 지루하다는 듯 하품하는 현기.

아파트 동 앞에서 친구를 만나 등교하는 여고생들이 나온다.

현 기: (여고생들을 보고) 선배님은... 형사가 되기 전에 원래 하고 싶은 일이 뭐였어요?

소 영: (돈금없다는 듯) 응?
현 기: 어릴 때부터 형사가 되기로 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소 영: 글썄... 뭐, 사실... 어릴 때... 그땐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
현 기: (의외라는 듯) 그래요?
소 영: 소위 말하는 문학소녀.....
현 기: (더욱 놀라는) 헉!!!?
소 영: 왜 그래?
현 기: 문학소녀가 아니라 문학 청년인줄 알았어요. 그게 더 어울려요.

소영, 현기 때릴 태세다.
현기 킬킬 웃는다.

현 기: 하긴... 이 일하면서 글을 쓴다는 게 힘들죠?
소 영: (스스름하게 웃으며) 그치... 그게... 맘처럼 잘 안 돼... 이형사는? 이형사는 원래 꿈이 형사였어?
현 기: 저도 사실은 사진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릴 땐 잠깐 사진도 공부했었구요. 하지만, 전 결국 그 꿈을 이뤘죠. 시체 전문사진사... 스페셜~ 하잖아요?

씨익~ 특유의 미소를 짓는 현기.

소 영: (놀리는) 그러네... 필름도 안 넣고 찍는 스페셜~한 사진사...
현 기: (당황) 아! 그때 그건...

당황하는 현기를 보고, 피식 웃음이 빠져나오는 소영.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정면을 보는 현기의 표정.
소영, 그런 현기의 모습을 본다.

현 기: 그래도 전 가끔 사진 찍고 싶을 땐 카메라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선배님도 옛날에 하고 싶었던 꿈... 포기하지 마세요. 좋잖아요. 형사 겸 소설가! 범죄추리 전문!!
소 영: 그래? 그거 재밌겠네! 범죄추리전문 소설가! 하하하!

정말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소영.
시계를 보는 현기.

현 기: 그나저나, 이렇게 대놓고 기다리기만 할 순 없고... 잠깐 올라가 볼까요?
소 영: 뭐?! 우린 지금 영장도 없고, 열쇠도 없어.
현 기: 열쇠야 없으면 만들면 되죠.

차에서 내리는 현기.
소영, 어리둥절하니 현기를 따라 나선다.

#51. 김동민의 아파트 현관. 오후

현기, 주머니에서 도구를 꺼내 문을 따려한다.

소 영: 이거 불법인거 알지?

현 기: 그런 거 일일이 따지면 언제 증인 찾고 언제 범인 잡아요?

딸각하며 능숙하게(!) 문을 여는 현기. 감탄하는 소영.

소 영: 제법인데?

피식 웃는 현기. 실내로 들어가는 두 사람.

#52. 김동민의 아파트. 오후

어수선하게 흐트러져 있는 동민의 아파트.

전화기 옆 메모지를 확인하는 소영.

안방 옷장 양복 주머니들을 뒤지는 현기.

동민 아내의 옷, 핸드백을 뒤져보는 소영.

화장실로 들어오는 소영, 화장실 관물대를 열어보고 쓰레기통을 뒤져본다.

동민이 먹던 약통을 발견하는 소영, 의아해하는 표정을 짓더니 주머니 속에 챙겨 넣는다.

현 기: (소리) 선배님!!

소영, 거실로 나오면,

거실 테이블 위를 가리키는 현기.

여성 월간지의 가볼만한 펜션들을 소개하는 기획특집 기사부분이 커피 잔들과 함께 펼쳐져 있다.

잡지를 보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소영과 현기.

#53. 소금마을 파출소. 조소장의 방. 오후

자리에 앉아 뭔가 컴퓨터 모니터를 심각하게 보는 조소장.

이때, 똑똑! 들리는 노크소리.

조소장: 어,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김반장과 박형사.

조소장: 무슨 일로...

-cut to-

대화를 나누는 조소장과 김반장, 박형사.

조소장: 나도 뭔가 일이 있었을 거라곤 생각을 했지만... 그 여자애네 집에서 부득부득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데 내가 뭘 수가 있나. 그래서 그 쪽으론 깊이 조사를 하지 않았고... 근데, 이제 와서 그 애긴 왜 끄내는데? 뭐, 내가 그때 수사를 잘못했다?

김반장: (당황)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실례가 많았습니다. 그럼...

경례하는 김반장.

조소장: 서로 피곤하게 옛날 일 들추고 그러지 말자고. 좋은 게 좋은 거라... 응?

김반장: (스스름하게 웃으며) 아, 네...

조소장: 그럼, 들 가시게...

김반장과 박형사, 조소장의 방에서 나간다.

이들이 나가자 얼굴 표정이 싸악~ 굳어버리는 조소장, 다시 컴퓨터 모니터를 본다.

조소장: (인상을 찌푸리며) 음...

카메라, 조소장이 보는 모니터를 비추면...

민정의 홈페이지가 떠 있다!

#54. 소금마을 파출소 앞. 오후

파출소를 나오는 김반장과 박형사.

담배를 입에 무는 김반장, 차에 오른다.

박형사: (운전석에 앉으며) 아니, 자가 아무리 계급이 높고 그렇다고 소속도 다른데, 초면에 반말 짹짹 해대고 태도가...

김반장: 박형사!

박형사: 아니, 그래도 사람이 초면이면...

김반장: (인상쓰며) 쓰읍~!

박형사: (움짤) 네...

길게 담배연기를 뿜는 김반장, 생각에 잠긴다.

김반장: 경감 달고 시골 파출소 소장으로 있는다...

박형사: 그것도 좀 이상합니다. 경감씩이나 달고 왜 이런 곳에 버티고 있는 거죠?

김반장: (박형사에게) 본부에 연락해서 조정남 계좌 추적하라고 해. 재테크에서 부동산 매물 거래, 친인척 관련 싸다! 10년 전 꺼 부터!

박형사: (씨익 웃으며) 뱀! 알겠습니다!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차.

#55. 몽타쥬 시퀀스. 오후

-한 펜션에서 주인과 대화하는 소영과 현기.
소영, 동민의 사진을 주인에게 보여주면 주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또 다른 펜션에서 동민을 물어보는 소영과 현기.
역시 고개를 젓는 주인.
서로 쳐다보며 한 숨 쉬는 소영과 현기.
-차 안에 들어오는 소영과 현기,
잡지에서 펜션 한 군데에 엑스 표시를 하고 뒷자리에 던져 놓는다.
카메라, 서서히 잡지 사진으로 다가가면...

#56. 펜션 침실. 저녁

사진에서 동민의 펜션으로 화면 전환.
화면은 누군가의 시점처럼 서서히 현관으로 다가간다.
서걱서걱하는 기이한 발소리...
시점은 현관을 지나 계단을 올라 침실로 향한다.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동민과 아내.
옆으로 누운 아내를 뒤에서 살포시 안고 자는 신혼부부의 모습.
이때! 이들의 발치를 훑! 지나가는 검은 그림자!!
이상한 낚새에 몸을 뒤척이는 동민.
어디선가 히힃!하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슬며시 눈을 뜨는 동민.
그의 배 위를 올라타고 동민을 내려 보는 어린 소녀!!

동 민: 허억!!

소녀, 팔을 뻗어 동민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억억거리며 숨을 못 쉬는 동민.
괴로워하며 겨우 고개를 돌려 아내쪽을 보는 동민.
아내의 뒤통수 머리카락들 사이로 보이는 민정의 정면얼굴!! 동민을 노려보고 있다!!

동 민: 으악!!

벌떡 일어나는 동민.
깜짝 놀라 일어나는 아내.

아 내: (스탠드를 켜며) 오빠!

정신차리는 동민.

아 내: 왜 그래? 괜찮아?

동 민: 괜찮아, 꿈 꿔나봐.

아 내: 물 좀 갔다줄까?

동 민: 어, 고마워...

부엌으로 나가는 동민아내.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는 동민.

동민아내, 곧 유리잔에 물을 담아 온다.

동민 옆에 걸터앉아 물을 건네는 동민아내.

동 민: 고마워...

물을 주욱 들이키는 동민.

아 내: 괜찮아?

동 민: 어, 이제 괜찮아졌어...

아 내: 오빠, 근데, 오빠 뒤에...

화들짝 고개를 돌리는 동민!

8살 소녀아이가 동민의 등에 업혀 어깨 위에 얼굴을 바짝 붙여 동민을 노려보고 있다!!

동 민: 으아악!!

침대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동민, 상체를 벌떡 일으켜 손을 뒤로 휘저어본다.

아무것도 없다.

이때, 동민아내, 고개를 숙여 킁킁 웃는다.

동민, 웃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미심쩍은 얼굴로 서서히 일어난다.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웃는 동민아내.

화장대 거울을 보는 동민.

거울에 비친 아내의 모습이... 산발을 한 기괴한 모습이다!!

동 민: 너... 누구야...?

여전히 계속 웃는 동민아내.

동 민: 너 누구야!?!?

갑자기 웃음을 뚝 그치는 동민아내,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면... 민정이다!!

동 민: 으악!!

동민, 혈레벌떡 몸을 구르다시피 침실을 빠져나온다.
침대에서 기어 내려오는 민정!

#57. 펜션 거실. 밤

계단을 거의 구르다시피 내려오는 동민.
서서히 계단에 드리워지는 민정의 검은 그림자!!
동민, 부엌으로 뛰쳐들어가 식칼을 꺼내든다!
다시 거실로 나온 동민. 민정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동민을 괴롭히는 그 기분 나쁜 소리는 계속해서 동민의 귀 언저리를 괴롭히고...

동 민: 나와!! 헉헉...

몸을 서서히 벽에 바짝 붙이는 동민, 뒤로 주춤주춤 움직인다.
카메라, 동민의 발밑에 배선된 전선줄을 타고 흘러가면,
한 쪽 구석의 어둠에서 스르르 나타나는 민정의 모습!!

동 민: 에이!!

식칼을 휘두르는 동민.
하지만 민정은 이미 사라지고...
반대편 구석의 어둠에서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민정!
다시 칼을 휘두르는 동민. 역시 민정은 사라진다!
동민, 한 쪽 벽에 있는 조명 전원을 모두 올리면, 이내 밝아지는 펜션의 실내.

동 민: 헉헉헉!!

동민, 숨을 고르는 중에...
그의 발밑으로 난 그의 그림자를 비추는 카메라.
갑자기 그 그림자에서 손이 쭈욱 나와 동민의 양 발을 붙잡는다!!

동 민: (털썩 주저 앉으며) 으악!!

칼을 휘두르는 동민.
하지만 그의 그림자도 민정도 사라지고 없다!
그를 괴롭히는 소리는 점점 극악해지면서 실내의 불들이 지지직거리기 시작한다.
순간 파팟! 하며 모두 꺼지는 실내등들!
'헉!'하며 놀라는 동민!

이내 바닥에 흥건히 흐르는 검은 물!!
그 검은 물바다 한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검은 물체!! 서서히 일어나 동민에게 다가오고...
경악하는 동민의 눈동자!!

동 민: 으... 으어어...

#58. 펜션 외부. 밤

현관을 뛰쳐나오는 동민!
코너를 돌아 한 쪽 귀퉁이에 몸을 숨긴다.
슬쩍 현관 쪽을 보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동민.
이때, 동민의 머리 위로 끈적한 액체가 떨어지고...
머리를 만지는 동민, 손을 보면 시뻘건 피가 손에 잔뜩 묻어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위를 보는 동민!
주르륵 그의 얼굴에 핏물이 떨어지고...
지붕 꼭대기에서 스물스물 거꾸로 내려오다 순간적으로 동민과 얼굴을 맞대는 민정!!

동 민: (소리) 으아아!!

이때, 동민의 얼굴을 비추는 플래시 불빛들!!
플래시를 켜고 총을 겨누는 소영과 현기다!!

소 영: 김동민, 꿈짜마!! 헉!!

소영과 현기, 순간적으로 놀라는데...
얼굴과 양손, 온 몸에 피칠갑을 한 동민이 식칼을 손에 든 채, 멍한 표정으로 소영과 현기를 보고 있다!

-Insert-

펜션 거실 바닥 위에 온 몸이 난자당한 채 누워있는 동민 아내.
사방에 피가 튄 펜션 내부...

#59-1. 취조실.

넋이 빠진 듯한 동민. 현기, 노트북으로 조서를 꾸미고 있고 김반장과 소영이 동민을 쳐다보고 있다.

#60. 동민의 진술. 소금창고. 과거

바닥에 피를 토한 채 쓰러져 있는 준호.

한 쪽 소금더미 위엔 정신을 잃고 깔딱깔딱거리는 민정이 누워있고...
당황하는 동민, 재혁, 지철, 정호...

어린재혁: 야, 이 씨발... 이거 어떡해...

어린정호: 씨발, 어떡하긴 일단 튀어!!

우르르 튀어나가는 네 놈들...

마지막으로 뛰쳐나가려던 정호, 몸을 돌려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비디오카메라를 챙긴다!!

#61. 김동민의 진술. 호텔 커피숍. 과거. 낮

동 민: (소리) 겁에 질린 우리는 그냥 일단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구요.

호텔 커피숍에서 설명을 하는 조정남. 10년 전이라 약간 젊어 보인다.

동민, 재혁, 지철의 부모로 보이는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끄덕인다.

한 쪽 구석엔 동민, 재혁, 지철, 정호, 넷이 고개를 숙이고 앉아있다.

동민(O.D): 그 날... 정호 어머니 장사를 하셔서 그 자리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런 일 있었다는 것도 모르셨을 겁니다...

-cut to-

동민, 재혁, 지철의 부모들이 정호에게 연신 악수를 하며 짙끔거리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정호.

그런 정호의 어깨를 툭툭치는 조소장. 그리고 그의 야비한 미소...

동민(O.D): 결국, 모든 걸 정호가 뒤집어쓰기로 했습니다. 대신 우리는 정호의 미래를 책임 지기로 한 거구요...

#59-2. 취조실

소 영: 비디오를 찍으면 피해자가 신고를 안 할 거라 생각했나요?

동 민: 처음 정호가 말한 게 그거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애초에 우리를 협박 하려고 그렇게 계획한 거였습니다. 지철이도 나중에 정호가 협박을 하니깐 알게 되었구요...

김반장: 그래서, 송정호가 나와서 일은 안하고 협박해서 돈을 뜯기 시작하니깐 나머지 셋이서 송정호 죽이고... 또 다시 죽인 게 두려워 당신이 나머지 안지철, 정재혁을 차례로 죽인 거지?!

동 민: 아니에요! 사실, 정호는 우리가 처리하기로 계획하긴 했어요. 테이프를 입수하려고요... 하지만, 그 애가 먼저 정호를 죽인 겁니다. 정호를 죽이고 불을 지른 거구요. 제가 죽인 거라면, 왜 불을 내겠습니까. 게다가, 나머지를 모두 제가 죽인 거라

니요...

동민, 눈물을 흘린다.

동민: 그 애, 그 애 에요. 그 여자애가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 앤... 저도 죽일 거예요!
살려주세요! 저를 가둬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소영: 김민정의 행방에 대해 아는 건 없어요?

김민정의 이름을 듣자 순간 겁에 질리는 동민.

동민: 모... 모르겠어요. 그 애도 그 형사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조서를 쓰던 현기, 순간 타이핑을 하다가 멈칫!! 한다.
소영과 김반장, 서로 쳐다본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소영: 와이프는? 와이프는 왜 죽였어요?

동민: 모... 몰라요. 내가 왜 그랬는지...

김반장: 헛소리 접어치우고 사실대로 말해!!

동민: (눈을 질끈 감으며) 자꾸 그 애 얼굴이 보였어요... 그 애 얼굴이...

말문이 막히는 형사들. 소영, 김반장을 쳐다본다. 김반장, 담배를 물고 불을 붙이며...

김반장: 형량 줄일라고 헛수작 부리지마. (현기에게) 조서는?

현기: (노트북에서 디스크를 꺼내며) 네, 다 썼습니다.

김반장: 그럼 조서 올리고, 민형사는 잠깐 나 좀 봐...

소영, 현기: 네.

나가려는 김반장, 소영, 현기.

동민: 저... 담배 한 대만 피울 수 없을까요...?

김반장: (현기에게) 담배 한 대 줘.

현기, 동민에게 담배를 물려주고 불을 붙여준다.

나가는 김반장, 소영, 현기.

김반장, 문밖에 서있는 의경에게 “잘 지키고 있어”하며 주의를 준다.

달히는 취조실 문.

동민, 초점 잃은 눈으로 멍하니 담배를 핀다.

이때, 서서히 들리기 시작하는 서걱서걱하는 소리...

동민: (담배를 떨어뜨리며) 헉!!

스산한 바람소리, 아니 입김을 불어넣는 듯한 ‘아.... 아..... 하....’하는 소리가 동민의 귓가에 울리고...

소리는 아이의 웅얼이와도 같은 웃음소리와 묘하게 어울려 아빠를 부르는 듯한 소리로도 들린다!!

현기의 노트북에 뜨는 민정의 홈페이지!

노트북이 서서히 혼자 동민의 얼굴 쪽으로 돌기 시작한다.

동 민: (신음) 으으으...

꼭꼭거리는 동민.

민정의 홈페이지에서 문제의 소녀 그림으로 넘어온다!

소리는 점점 거세지면서 동민을 괴롭히고...

그림에 서있던 소녀,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면, 그림에는 소녀는 없고 텅 빈 계단만 남는다.

이때, ‘헉’하며 고개를 책상 밑으로 내리는 동민!

발밑에 일그러진 얼굴의 민정이 동민을 올려보고 있다!

이내 책상 밑에서 동민의 몸을 타고 서서히 기어 올라오는 민정!

어느 순간 동민의 허벅지 위에 발을 딛고 올라선다!

민정에게 눌린 채 다리를 꼼짝도 못하는 동민!!

공포에 떠는 동민의 눈동자,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민정의 다리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검은 물! 바닥으로 흘러내려와 의자 주위에 퍼진다.

이어 바닥에서 의자 뒤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8살의 소녀!!

갑자기 뒤에서 동민의 목을 조르기 시작한다.

동 민: 어억!!

뒤로 젖혀지는 동민의 얼굴!

동민과 눈이 마주치는 민정의 빨간 눈동자!

이어 민정의 눈에서 떨어지는 빨간 피눈물은 동민의 벌어진 입 속으로 떨어진다!!

#62. 경찰서 휴게실. 밤

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 김반장과 소영.

김반장: 조소장... 이 인간이 시치미를 떼는 게...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말야...

소 영: 이번 사건은 온통 의문투성이예요. 불이 나서 사건이 공개된 것도 그렇고... (뭔가 이상한) 정말 불이 우연히 난 걸 까요? 불이 안 났다면 10년 전 사건도 완전히 은폐되는 거잖아요...

고개를 끄덕이는 김반장... 이때,

갑자기 울려 퍼지는 동민의 비명소리!

동 민: (소리) 으아악!!

김반장, 소영, 동민의 비명소리를 듣고 취조실로 뛰어간다.

#63. 취조실.

취조실로 뛰어 들어온 김반장과 소영.

의경,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서있기만 하다.

그들의 눈앞에는 김동민이 자기 손으로 목을 조르며 버둥거리고 있다.

흉측하게 얼굴을 일그리며 괴로워하는 동민!

하지만 김동민의 시각에선 자신의 허벅지 위에 서있는 민정이 자신을 노려보며 피눈물을 똑 똑 흘리고 의자 뒤편의 여자아이가 목을 조르고 있다!

여자아이의 손을 떼려 안간힘을 쓰는 동민!

(위의 각각 시각 차이-형사들의 시점&동민의 시점-들과 민정의 얼굴, 눈, 소녀의 손, 표정, 동민의 얼굴 등등이 빠르게 교차 편집되어 보여진다.)

소 영: (의경에게) 뭐해?!! 붙잡아!!

동민에게 달려드는 소영과 의경, 김반장.

하지만 미처 그의 손을 잡아떼기 전, 의식을 잃는 동민.

소 영: (의경에게) 의무반!! 의무반 좀 불러줘!!

서둘러 취조실을 나가는 의경.

소영, 동민 목의 맥을 짚어본다. 절망하는 소영...

이전의 피해자들과 똑같은 표정으로 숨을 멈춘 동민의 얼굴...

김반장, 낙심하며 괴로워하고...

소영, 일어나 현기의 노트북을 본다.

노트북은 예전처럼 피의자 반대 방향으로 돌려져 있는데...

노트북을 돌리는 소영,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다!

LCD모니터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문제의 소녀 그림!!

F.O

암전된 어둠 속에서,

소 리: 난,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어. 아무것도... 내가 느낀 건, 내 귀밀을 스치는... 거친 호흡. 바람.

#64. 소영의 꿈.

후우웅~하는 강한 바람소리와 함께 부스스 움직이는 갈대소리.
황량한 폐염전의 갈대밭이다.
갈대숲을 헤치며 가는 소영, 어딘가를 찾아 헤맨다.
저 멀리 소금창고 하나가 쓸쓸하니 서있다.
소영, 소금창고 쪽으로 다가간다.
어느 순간, 바로 소금창고 앞에 서있는 소영.
허름한 소금창고 앞에 어린 여자아이가 공기놀이를 하고 있다.
소영, 어느 순간 아이의 앞에 서있다.
소영 앞에 굴러오는 공깃돌 하나...
공깃돌을 주워 자세히 보는 소영, 반쪽이 나가고 없다.

소 영: 왜 한쪽이 없니?
여자아이: 넷은 너무 적고 다섯은 너무 많아.
소 영: ?

갑자기 아이, 책 뒤돌아 소금창고 안으로 뛰어 들어간다.
반쯤 열린 문 사이에 민정이 서있는 것이 보인다!!
민정을 보는 소영... 서글픈 표정으로 소영을 보는 민정...
순간, 민정의 눈에서 빨간 피눈물이 흐른다!
소영이 한 발짝 다가서는 순간, 또 다시 강한 바람이 불면서 쿵! 하고 세차게 닫혀버리는
소금창고 문.

#65. 소영의 방. 오전

소 영: 헉!

눈을 번쩍 뜨며 벌떡 일어나는 소영.
하얀 커튼에는 이른 새벽의 파란 기운이 감돌고 있고...
떨걱하며 침대 말의 스탠드에 불을 켜고 담배를 몰어 불을 붙이는 소영,
그제야 울리는 알람소리.
탁상시계는 오전 6시 정각.

#66. 수사본부. 오전

잔뜩 기운 빠진 모습으로 출근하는 소영.
형사반원들, 모두 앉아 경위서들을 작성하고 있다.

박형사: (소영을 보고) 왔어? 민형사도 불똥 튀기 전에 얼렁 경위서나 써...
소 영: (숨슬...) 네... (김반장에게) 이형사는요?
김반장: 아침에 누구 좀 잠깐 만난다고, 늦는다고 전화 왔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는 소영, 잠시 앉아 있다가...

-Insert-

썸 69의 피눈물을 흘리며 소영을 보는 민정의 모습.

다시 수사본부.

소 영: 저... 반장님, 그 테이프 좀 다시 볼 수 있을 까요?

#67-1. 시사실

6mm 테이프를 플레이어에 넣는 소영. 불을 끄고...

곧이어 프로젝션에선 원추형의 빛이 뿜어져 나오면서 문제의 장면이 시작된다.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는 소영.

스크린에서는 민정의 비명과 악마들의 악다구니, 낄낄거리는 웃음들이 흘러나와 소영을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번에는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눈을 부릅뜨고 정면을 응시하는 소영.

간간히 눈이 움찔거리고 턱에 힘이 들어가지만 단단히 각오를 한 듯...

하지만 이내 두 눈에 눈물이 잔뜩 고이기 시작한다.

#68. 소영의 회상. 공사 건물. 밤

공사장 계단에 넘어지는 어린 소영.

그리고 소영을 덮치는 그림자! 대학생으로 보이는 멀끔하게 생긴 남자다.

이내, 소영의 복부를 강타하는 남자!

악! 소리와 함께 늘어지는 소영.

그런 소영 위를 덮치는 남자.

남자의 거친 숨결이 소영의 목덜미 위로 흘러나온다.

고개를 반대로 돌리는 소영.

소영의 왼팔을 잡은 남자의 두툼한 오른손이 눈에 들어온다.

손등에서 손목까지 가로로 뉘어있는 께맨 흉터가 보인다.

눈을 질끈 감고 눈물을 흘리는 소영.

#67-2. 시사실.

두둑 떨어지는 소영의 붉은 눈물방울.

하지만, 소영은 더더욱 눈에 힘을 주고 정면을 응시한다.

꽉 잡은 두 손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고... 입술을 질끈 깨무는 소영.

스크린: (소리) 뭐하는 거야?!!

화면이 끝이 났는지, 이내 시사실은 온통 암흑과 적막으로 뒤덮인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영의 거친 호흡.
담배를 꺼내 무는 소영.
화악~하며 불이 켜지는 소영의 라이터.
라이터의 불을 응시하는 소영, 이때! 원가를 깨달은 듯...
스크린의 화면, 빠르게 리와인드된다!
문제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플레이하는 소영.
얼굴이 퐁퐁 부은 채 스크린을 뚫어져라 쳐다본다.
화면이 끝나면 다시 리와인드!
문제의 지점에서 다시 플레이하는 소영.
다시 리와인드!
일시 정지를 하는 소영.
화면은 잔뜩 일그러진 민정의 얼굴과 그녀를 붙잡고 있는 악마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화면에는 세명이 있는 것 같지만...
노이즈 낀 화면 한쪽을 자세히 보면...
민정의 한 쪽 팔을 붙잡고 있는 누군가의 손이 보인다!!

소 영: 하나, 둘... 셋... 넷...

다시 플레이하는 소영.
누군가 들고 찍은 듯 흔들리는 화면.

소 영: 그리고...

그런 화면을 응시하는 민정, 낯이 나간 표정으로... 원망에 가득찬 눈빛...
이때, “뭐하는 거야?!”하는 준호의 목소리가 들리고 카메라는 빠르게 팬해서 준호를 비추다 바닥에 떨어진다.
화면이 끝나고 암전...
이때, 소영에게 걸려오는 전화. 소영, 전화를 받는다.

소 영: 네, 민소영입니다.

부검의: (소리) 목소리가 왜 이래? 감기 걸렸어?

소 영: 아뇨... 무슨 일이신데요?

#69. 부검실

책상 앞에 앉아 전화를 하는 부검의.
그의 앞에는 소영이 동민의 화장실에서 발견한 약통과 피해자들의 담배꽂초, 그리고 미세한 가루들을 모아놓은 유리판 등이 놓여있다.

부검의: 어제 부탁한 약통 있잖아, 결과 나왔어.

소 영: (소리) 무슨 약이에요?

부검의: 신경안정제인데... 시판은 안 되는 거야. 장기복용하면 환각증세가 나타나거든.

-Insert-

놀라는 소영의 표정.

다시 부검실.

부검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 내가 실수해도 아주 단단히 실수했어.

소 영: (소리) 무슨 얘기에요?

부검의: 거 현장에서 보낸 담배꽂초들 있잖아. 필터에서 청산반응이 나와서 난 중독된 입이랑 접촉해서 나온 건 줄 알았더니...

담배꽂초 하나를 집어 반으로 뜯는 부검의.

필터 사이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미세한 가루들!

부검의: 그 반대로 필터에서 입으로 들어간 거드라고. 과립형 청산칼륨이야.

가루들 위에 탄산음료를 살짝 떨어뜨리는 부검의.

부글부글 끓으면서 살짝 연기가 피어오른다.

부검의: (연기를 손으로 휘휘 저으며) 이걸 맥주나 탄산음료랑 마시니까 뱃속으로 들어가 천천히 반응해서 청산가스가 발생한 거 같아. 그게 기도를 타고 폐로 역류해 들어간 거지. 수색 물부터 성분분석하고 시체를 검시했으면 눈치를 챘을 텐데...

#70. 경찰서 복도

광! 하고 시사실 문을 박차고 나와 허겁지겁 복도를 달리는 소영.

그 위로 흐르는 부검의의 목소리.

부검의: (소리) 경찰에서 시체 먼저 검시하고 수색물 분석이 나중에 된다는 것마저 이용한 거 같아. 농의 심리전에 넘어간 거 같아서 기분 옛 같네, 젠장... 범인이 누군지 몰라도 이 바닥을 아주 잘 아는 농 같아. 아! 그리고, 어제 넘어온 김동민은 청산가스 아니고 그냥 청산중독사다. 청산칼륨에 직방으로 당한거야.

-Flash back-

썸27의,

현 기: 어렸을 때 잠깐 바닷가에서 자랐어요. 염전 있고 갯벌 있고 그런데요.

-Flash back-

썸52의,

현 기: 저도 사실은 사진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소영의 머리를 스치는 민정 홈페이지의 스틸 사진들!!

-Flash back-

53썸의 아파트 현관문을 능숙하게 따는 현기. 감탄하는 소영.

소 영: 제법인데?

피식 웃는 현기.

다시 복도를 달리는 소영. 연신 고개를 가로젓는다.

소영의 컷전을 때리는 대사 한마디, 한마디...

‘시경 감시계에 있다 자원해서 왔는데...’ ‘왜 왔는데요?’ ‘이 손으로... 붙잡고 싶어졌어요...’

‘찾고 싶은 사람이...’

-Flash back-

21썸의 카페에서 재혁에게 담배를 건네는 현기, 담배를 갑 채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담배를 두고 그냥 일어나는 현기.

-Insert-

슬로우 화면으로, 카메라 앞에서 화악하고 불이 붙는ライター. 라이터의 불은 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은 취조실에서의 김동민의 모습이다. 라이터를 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현기, 김동민이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자 씨익 웃는다.

다시 복도를 달리는 소영.

-Insert-

썸 14의,

소 영: (한심하다는 눈빛) 첫사랑 찾을라고 형사되는 인간도 있냐?

현 기: 그런 사람 있어요.

소 영: 누구?

현 기: 저요.

썸15의,

터벅터벅 걸어가는 소영의 뒷모습을 보는 현기. 담배에 불을 붙이고 후욱~ 불어낸 연기가 가로등에 비쳐 사방에 흩어지는 모습... 반대편으로 걸기 시작하는 현기.

복도를 달려 수사반 문을 광!하고 열며 들어가는 소영.

#71. 바닷가. 오전

방파제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는 현기, 목에는 카메라가 걸려있다.
위로 발자국을 세며 물러나는 현기,

현 기: 하나, 둘, 셋, 넷... 넷 반.

씨익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들어 뷰파인더를 본다.
뷰파인더 안에는... 민정이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한다.
찰칵... 셔터를 누르는 현기. 카메라를 내리면...
10년 전의 어린 현기의 모습이다...

민 정: 왜 네 발자국 하고 반이야?

어린현기: 여기서 네 발자국 반 떨어져 찍어야 인물이랑 풍경이 멋지게 나오거든요.

넷은 모자라고...다섯은 너무 많구요...

민 정: 풍경만 멋지게 찍은 거 아니야?

어린현기: 아, 아니예요. 누나 각도는 제가 다 알고 있어요. 내 첫 번째 전속 모델인걸요.

밝게 미소 짓는 민정.

민정과 현기, 방파제 난간에 서서 바다를 바라본다.

민 정: (깊게 숨을 쉬고) 이렇게 바다랑 만나고 있으면... 꼭 아빠랑 만나는 기분이야. 아빠
한테서 이렇게 바다냄새가 났거든... 사진 나오면 최대한 빨리 줄래? 그 사진을 보
면... 아빠랑 같이 찍은 기분이 들거야...

어린현기: ... 네...

서로 쳐다보며 웃는 두 사람.

어린 현기,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며 뭔가 망설이는 모습이다.

어린현기: 누나... 저... 전부터 누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민 정: ??

망설이는 현기. 사랑고백이나 하려는 듯, 수줍은 소년의 망설이는 모습 그 자체이다.

민 정: (웃으며) 뭔데? 말해봐...

어린현기: 누나...

민 정: 응? 뭔데?

카메라, 반대편 현기 쪽으로 넘어가면... 어린현기는 사라지고 성인이 된 현기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현 기: 미안해요...

아무도 없는 쓸쓸한 방파제. 현기, 어디론가 가기 시작한다.
흐릿한 하늘... 점점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다.

#72. 현기의 자취방. 오전

광!! 하고 문이 열리면서,

김반장: 이형사!!

현기의 자취방에 들어닥치는 김반장과 형사들. 하지만, 현기는 보이지 않는다.

박형사: 반장님!!

책상 위를 가리키는 박형사.

책상 위에는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때 썼음직한 민정의 사진들과 스케치북, 일기 등이 어지러이 놓여있다!

그리고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편지 한 장.

편지를 들어 보는 김반장.

화면 위로 흐르는 현기의 목소리.

현기(Off): 역시 선배라면 찾을 줄 알았어요.

#73. 파출소 소장실. 오전

책상에 앉은 채, 벌벌 떠는 조소장.

그리고 안경을 벗고 그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현기...

쿠르릉! 멀리서 들리는 천둥소리.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

현기(Off):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난 아마 그녀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74. 차 안. 오전

서서히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하늘...

미친 듯이 차를 모는 소영. 설레설레 고개를 젓는다.

소 영: 아니야... 설마... 안돼...

현기(Off): 사람은 누구나 한번은 실수를 저지른다고 하지만, 어떤 실수냐에 따라 정말 크게 다르더라고요. 그 한번의 실수... 내 스스로에게나, 그 놈들에게나... 용서할 수도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실수였어요. 언젠가, 항상 마음속에 무거운 돌을 안고 살 거라는 얘기했었죠?

#75. 현기의 자취방. 오전

휴대폰을 들고 있는 김반장.

김반장: 역시 맞았어! 이제 어떡하지?!

소 영: (소리) 소금창고!! 그 소금창고예요!! 분명 그리로 가고 있을 거예요!!

김반장: 알았어!! (전화를 끊고 편지를 챙기며) 빨리 출동하자고!!

박형사, 형사반원: 넷!!

우르르 달려 나가는 형사들.

#76. 국도. 오전

도로변에 차를 정차시키고 핸들에 고개를 묻고 있는 소영.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닫고 조수석에 던져놓는다.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 듯...

현기(Off): 그 돌의 무게가 나를 10년 동안 짓누르고 있었어요... 이젠 그 돌을 치워야 할 것 같아요...

이내 얼굴을 드는 소영, 악셀을 힘껏 밟는다.

끼이익하며 출발하는 소영의 차!

#77. 과거. 현기의 회상. 몽타쥬시퀀스

-갈대밭에서 그림을 그리는 민정의 사진을 찍는 어린 현기.

민정, 고개를 돌려 현기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현기, 얼굴이 빨개지더니 쑥스러운 듯, 자리를 떠난다.

그런 현기의 모습을 보고 피식 웃곤 다시 그림을 그리는 민정.

현기(Off): 사진 외에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던 내게 그녀는 누군가를 보고 숨이 막히고 심장이 떨린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어요.

-하교하는 현기.

현기의 뒤를 따라 달려오는 민정.

민 정: (현기의 등을 치며) 애!

돌아보는 현기.

민정, 헉헉 숨을 고르며 이마의 땀을 닦는다.

그런 모습을 보고 흔들리는 현기의 눈동자.

민 정: 너 1학년이지?

어린현기: 네...

민 정: 애, 너는 맨날 나 몰래 사진 찍기만 하고 언제 보여줄꺼야?

어린현기: (부끄...) 저... 잘 나온것만 보여드릴라구...

민 정: 그래? 그럼... 나 기대한다.

어린현기: 네...

민 정: 너, 꼭 사진 보여줘야해!

현기에게 팔장을 끼는 민정.

현기, 헉! 하고 놀란다.

꽃노래를 부르며 가는 민정.

그런 민정에게 끌려가다시피 하는 현기.

-졸업식 모습.

친구들과 꽃다발을 안고 포즈를 취하는 민정.

어린현기, 사진을 찍어준다. 이때,

준 호: (민정에게 다가와) 축하해.

민 정: 응. 너도... (현기에게) 현기야. 우리 사진 찍어줄래?

민정, 준호에게 팔짱을 낀다.

민 정: 자~

뷰파인더를 보는 현기, 준호의 얼굴을 자르고 앵글을 잡아 찍는다.

현기(Off): 하지만 그녀는... 그녀는...

-소금창고의 창가로 다가가는 현기. 서서히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20송이의 빨간 장미꽃 다발과... 하나로 엉켜져있는 민정과 준호...

현기의 손에서 떨어지는 20송이의 백장미 다발과 민정의 사진들.

행복감에 겨운 민정과 준호의 애정 가득한 눈빛들.

떨리는 현기의 눈동자.

-바닷가 방파제.

불에 타고 있는 민정의 사진들과 20송이의 백장미 꽃다발...
술을 들이키는 현기. 갑자기 벌떡 일어나 술병을 바다로 던져버린다.

어린현기: 으아아! 아악!! 아아!!

불에 타들어가면서 일그러지는 민정의 사진...

현기(Off): 나 스스로 감정을 만들고 나 혼자 느꼈던 거예요. 그 배신감은 분노로 바뀌었고... 그 분노는 증오를 낳고 말았죠... 그 놈들을 만난 건 그 해 여름이었어요...

-한적한 소나무 숲

정호와 지철,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하다.

한 쪽에서 나타나는 어린 현기.

어린정호: 오랜만이다.

어린현기: (별로 안 반가운) 네...

어린정호: 너 요즘도 사진하지?

-cut to-

어린현기: 네?! 그냥 주신다구요?!

어린지철: 그래, 진짜 준다니까... 이거 일본에서 나온 거, 아직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도 않은 거야.

지철의 비디오카메라를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는 어린 현기.

어린정호: 그냥, 밖에서 기다리다가 내가 부르면 들어와서 찍으면 돼.

어린현기: 근데... 뭐 하실 건데 카메라를...

어린정호: 어, 그냥... 영화 찍는 거야. 그때 들어와서 보면 돼.

어린현기: 영화요?

어린정호: 너, (지철을 가리키며) 애네 아빠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사진과 나와서 방송국에 있어. 촬영하는 사람들 많이 안단말야. 너 사진할라면 서울서 공부할 꺼 아냐. 이거 찍으면 나중에 소개시켜 줄 수도 있단구. 그러니까 잘해.

멍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어린 현기. 씨익 웃는 정호와 지철.

-늦은 밤. 벌컥! 소금창고 문이 열리면서 정호, 밖에서 있던 현기를 부른다. 재빨리 달려가는 현기. 정호, 현기에게 비디오카메라를 건넨다.

어린정호: (달려가며) 빨리! 빨리!

어린현기: (달리면서 LCD 창을 열며) 네, 네...

한 쪽 구석에서 한 여자와 세 남자가 한 덩어리가 돼서 몸싸움을 하고...

송정호, 이에 가세한다.

현기, 얼쩍이 떨어져 이 광경을 찍는다.

춤을 당기는 현기.

여자는... 민정이다!!

어린현기: !!!

스르르 팔에 힘이 풀리는 현기...

어린정호: 뭐해?! 안 찍어?!!

어린현기: (당황) 네... 네...

레코드 버튼을 꾸욱 누르는 현기.

현기(Off): 처음엔 연기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금방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됐죠. 하지만...
난, 나도 모르게 어느새 그 상황을 즐겼던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
고 있었죠... '그래, 너 좋아하잖아. 저런 거. 실컷 해봐. 그래...' 흐흐...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촬영을 하는 현기.

부들부들 손이 떨리지만, 이를 악물고 촬영을 한다.

찢끔찢끔 눈물이 내려하지만 억지로 참는다.

현기의 눈 위에 겹쳐지는 민정과 준호의 정사장면들...

눈에선 눈물이 그렇그렇하지만 입가엔 묘한 미소가 띄어져 있는 어린 현기...

이때,

준 호: 뭐하는 거야!!

때마침 나타난 준호와 눈이 마주치는 현기.

놀라는 준호, 당황하는 현기.

털썩 바닥에 떨어지는 카메라.

부스스 일어나는 네 놈들...

준 호: (민정을 보고 놀라) 야이, 개새끼들아!!

네 놈들에게 달려드는 준호.

당황하는 현기, 자리를 피해 밖으로 달아난다.

-밤길을 달리는 어린 현기. 연신 눈물을 흘린다.

현기(Off): 내가 뭐한 거지?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난 그길로 정신없이 달려서, 파출소에 신고를 했고...

-파출소에 들이닥치는 어린 현기.
놀라면서 출동하는 경찰들.
어린 현기와 스치는 젊은 조소장.

#78. 빗길

거칠게 비가내리는 하늘.
머리에 총을 겨눈 채, 조소장을 앞세워 빗길을 걷는 현기.
문제의 소금창고를 향해 가고 있다.

현 기: ... 죽일 것 까진 없었잖아... 왜 그랬어!!? 왜!!
조소장: 난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는줄 아나?!!

#79. 과거. 조소장의 회상. 몽타쥬

-신고를 받고 소금창고로 들어가는 젊은 조소장과 경찰들.
밖에선 경찰차들의 경광등이 정신없이 번쩍거리고...
웃이 찢겨지고 엉망인 민정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준호를 안고 오염을 토하고 있다.
하얀 소금더미와 새빨간 피가 묘한 대조를 이룬다.

-방에 누워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민정.
밖에서 조소장과 할머니의 대화소리가 들린다.

조소장: (소리) 그러니까... 제 말대로만 하면 소문도 안 나고 아무 일 없을 거라니까요.

할머니: (소리-울먹울먹) 아유... 그렇게만 해 주세요. 저 불쌍한 것이... 시집이라도 가야하는데...

조소장: (소리) 저쪽에서 보상은 충분히 한다고 그러니까...

천장을 보는 민정의 초점 없는 눈동자...
그리고 주르륵 흐르는 눈물..

-화장실에서 부풀어 오른 배를 만지는 민정. 겁에 질린 모습.
면도칼로 손목을 그으려다가...
이내 포기하고 주저앉아 운다.

조소장: (소리) 그것이 임신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

-고해를 하는 민정. 괴로워하는 신부.

-인적이 드문 커다란 나무 밑에서 다투는 민정과 조소장.

민 정: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세요!! 아님 저도 가만있을 순 없다고요!!

당황하는 조소장.

조소장: 알았어, 만나게 해줄게...

-소금창고 안으로 들어서는 민정.

민 정: 조형사님! 저 왔어요. 어디 계세요?!!

점점 안쪽으로 들어서는 민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에 밟히는 소금에서 서걱서걱하는 소리가 들린다!

조소장: (소리) 여기야!!

민 정: 어디세요?

조소장: (소리) 이쪽이야!

민 정: 어디요?

이때, 갑자기 민정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소금들.

민 정: 아악!!

투입구에서 떨어지는 소금들은 가차 없이 민정을 덮치기 시작한다.

투입구 위에서 민정을 내려보는 조소장.

민 정: 사.. 살려주세요!! 형사님!! 아악!!

어느새 쌓인 소금은 민정의 허리에서 목 위까지... 그리고 얼굴을 뒤덮기 시작한다.

민정의 쪽 뺨은 팔은 소금창고 벽을 긁다가 벽에 붙어있는 외등 전선줄을 붙잡는다.

줄을 당기는 민정.

하지만 전선줄은 끊어지고 모든 불들이 꺼져버린다.

쏟아지는 소금은 마침내 쪽 뺨은 민정의 팔까지 삼켜버리고...

온통 암흑속인 소금창고 내부...

그 속을 내려 보는 조소장, 표정에 아무런 변화도 없다...

#80. 소금창고. 오전

우르릉 하는 천둥소리와 함께 억수같이 퍼붓는 비를 맞는 소금창고.

군데군데 10년 동안 방치해둔 소금 산들이 그 본연의 빛을 잃고 거무튀튀한 색으로 지저분하게 쌓여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현기와 조소장.

조소장: 그 아인 소원 데로 소금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이리저 말고 그냥 돌아가자. 인생 망치고 싶은 거야? 선배로 서 하는 얘기야. 그냥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 우리... 없던 일이 되는 거라고, 응?

현 기: (이를 악물고) 눈물 나게 고맙네... 답례라도 해줄까?

천장을 향해 총을 한발 쏘는 현기. 팡! 소리와 함께 한쪽 지붕이 부서진다.

현 기: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야... 빨리 찾아... 마지막 경고야!!

총소리에 기가 죽은 조소장, 삼을 들고 한 쪽 소금산을 파기 시작한다. 이때,

소 영: 이형사!!

소금창고로 뛰어 들어오는 소영.

현 기: (소영을 보고 웃으며) 생각보다 너무 일찍 오셨네요...

소 영: 이형사! 그만 뒤!!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조소장.

이를 본 현기, 지붕을 향해 총을 한발 더 쏜다.

현 기: (조소장에게) 빨리 안해?!!

소 영: (총을 꺼내 현기를 겨눈다) 그만두라니까!!

빠거덕빠거덕 부서진 지붕이 조금씩 흔들리면서 비가 세차게 들이친다.

서서히 녹기 시작하는 소금산...

현기, 미소를 지으며 소영을 본다.

현 기: 전에 얘기하신 적 있죠? 여자도... 사랑을 찾고 만들고 싶은 거라고...

소 영: !!

현 기: 그래요. 근데... 그런 걸... 그때는 몰랐어요. 바보같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지켜줄 수 있었어야했는데 말이에요. 정말 사랑한다면...

세찬 비가 부서진 지붕의 한 쪽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점점 빠르게 무너져 내리는 소금산.

소금들이 빗물에 씻기면서 더러운 소금들이 녹아사라지고 그 본연의 흰색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때, 눈치를 보던 조소장, 달아나려하면, 조소장을 향해 총을 쏘는 현기.

조소장: 으악!!

다리에 총을 맞은 조소장, 그대로 고꾸라진다.

그리고 그의 위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소금창고 지붕 잔해들!

소영, 달려가 조소장을 끌어낸다.

쿵!하고 떨어지는 지붕 잔해를 가까스로 피하는 소영과 조소장.

이때! 현기, 갑자기 뭔가를 본 듯, 멍하니 무너진 소금산의 한쪽을 응시한다.

무너져가는 소금산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민정의 시체!

현 기: (민정의 시체를 보며) 미안해요...

총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겨누는 현기.

소 영: 이현기!! 그만 뒤!!

현 기: 모두들 죽고 저만 남았어요. 저도 가야죠...

소 영: 그런다고 누가 용서할 것 같아?! 그냥 그런 식으로 가면 내가 용서하지 못해!!

흔들리는 현기의 눈.

이어 현기의 눈동자는 축축이 젖어오기 시작한다.

소 영: 누구 맘대로 멋진 척 하려고? 죄를 지었으면 살아서 짓값부터 치러! 그 다음에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

현 기: 그렇게도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역시나 난 비겁한 놈인가 봐요. 그때처럼...

소 영: 그만한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딴어?! 더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그 아픔을 안고... 살란 말이야! 정말 괴롭고 누우치고 싶으면... 이런 방법은 아니야! 절대!

소영의 말에 괴로워하는 현기, 서서히 총을 내리고, 소영을 향해 팔을 벌린다.

당황하는 소영.

현 기: 그럼... 선배가 절 싸주세요.

소 영: !!

현 기: 나... 그때 알았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말할 때... 그 아픔... 나를... 그 놈이라고 생각하고... 싸주세요...

현기를 노려보는 소영. 마치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듯...

파르르 떨리는 소영의 눈.

눈을 감고 침을 꿀꺽 삼키는 현기.

소영: (총을 내리며) 아니. 안 쏠 거야. 죽이지 않을 거야. 주위에서 지켜볼 꺼야. 내가 만약 그 새끼 썩서 죽여 버리면... 그 새끼 분명 자기는 억울하게 죽는 거라고 생각할 테니까. 절대, 절대로 그렇게 보낼 순 없지. 살게 해야지. 살게 할거야. 그래서 지 같은 새끼들 드글드글 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 새끼가 똑같은 꼴 당하는 것도 보게 하고... 늙고 병들어 추하게 죽을 때... 그때,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말할 꺼야. 니 평생 살아온 인생... 발정난 개만도 못한 인생이었다고...

소영의 말에 당황하는 조소장과 현기.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현기.

한쪽에 웅크리고 있는 조소장, 얼굴을 감싸며 괴로워한다.

현기: 그렇게... 사는 게 두려워요...

다시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는 현기.

현기: (소영을 보고) 죄송해요, 가야겠어요... 가서, 직접 용서를 구할 거예요. 짧았지만 만나서 좋았어요. 용서해주세요. 비겁하고 이기적인 날...

마지막으로 민정의 시체를 보는 현기.

-Ins-

석양이 진 서해안 바닷가.

바다 거품을 피하며 카메라를 보는 (현기의 시점) 민정.

현기를 부르는 듯 한 민정의 환한 미소

다시 소금창고.

팡!하고 울리는 총성!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현기...

부들부들 떨면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 현기를 보는 소영...

어느덧 비는 그치고...

구름들 사이로 드러나는 햇빛...

이때, 우르르 형사들과 경찰들이 들이닥친다.

김반장: (조소장을 보고) 연행해!!

조소장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박형사.

박형사와 형사반원, 순순히 응하는 조소장을 연행해 나간다.

김반장, 소영 곁으로 다가가 쓰러져 있는 현기의 시체를 본다.

응급반, 들것을 가져와 현기의 시체를 수습하고...

입구로 나가는 현기의 시체를 바라보는 소영.
고개를 돌리는 소영과 김반장.
드디어 전체 모습을 드러내는 민정의 시체.
믿을 수 없을 만큼 거의 부패하지 않은... 민정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다리 사이에 머리만 빠져나와있는 갓난아기의 시체!!
그것은 실례의 '어머니의 죽음', 바로 송정호가 그린 그림과도 같은 자세이다.
소영, 민정의 얼굴을 보자, 그만 울음이 터져나오고...
햇빛을 받는 민정의 얼굴... 그 눈에서도 하얗게 녹은 소금물이 흘러나온다...

White-out

#81. 부검실

덤덤한 표정으로 차가운 철제 침대 위에 미이라가 되어 누워있는 민정과 따로 분리된 아기 미이라를 보는 소영.

부검의: 관내분만이라고, 시체가 썩으면서 속에 가스가 팽창을 하거든... 그러면 뱃속에 있던 아기가 사후에도 만출이 돼.

이런 현상 때문에 '아이는 죽어서도 반드시 분만된다.'라는 말이 생긴건데... 그건 죽어서라도 산모가 겪어야 하는 분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 그만큼 분만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말해주는 거기도 하고...

소 영: 그런 분만의 고통을 10년 동안이나 안고 있었군요...

#82. 수사본부. 오전

현기의 자리를 정리하는 소영.

소 영: (소리) 아기는 다 나오지도 못하고 목이 졸린 채 그렇게 10년이나 있었구요...

현기의 물건들을 박스에 넣는 소영, 그만 현기의 다이어리를 떨어뜨린다.

다이어리를 집는 소영, 갈피 사이에 빠죽 나온 사진을 본다.

사진을 꺼내보는 소영.

사진은 현기가 찍었음직한 민정의 졸업사진이다.

준호는 얼굴이 잘린 채, 사진이 찍혔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학교 현관의 전신거울에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어린 현기의 모습이 보인다.

F.O

#83. 소영의 꿈

황량한 폐영전의 갈대밭.

갈대 숲을 헤치며 소영, 어딘가를 찾아 헤맨다.
저 멀리 소금창고 하나가 쓸쓸하니 서있다.
소영, 소금창고 쪽으로 다가간다.
어느 순간, 바로 소금창고 앞에 서있는 소영.
이때, 휘잉~하니 바람이 불면... 삐꺼덕 하며 열리는 소금창고 문.
활짝 열리는 문 안에 민정이 서있는 것이 보인다.
소금창고 안은 눈부시게 하얀 소금들로 가득 차 있다.
민정을 보는 소영...
민정, 소영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소영도 민정을 보고 미소를 짓는다.
이내 환하게 웃는 민정.
카메라, 소영쪽을 비추면 소영은 10년 전의 어린 소영의 모습이다.
또래의 두 소녀,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는다.
정말 시원하게 웃는 또래의 두 소녀...
주위에 있는 소금이 유난히 하얀빛을 더한다.

#84. 소영의 방. 오전

소영의 얼굴에 환한 햇살이 떨어지고...
부스스 눈을 뜨는 소영, 고개를 돌려 알람시계를 본다. 시간은 9시 정각.
침대에서 내려와 머리를 굽적이며 창가로 가는 소영,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한다.

소 영: (크게 기지개를 켜며) 아함~

카메라, 빠지면... 깔끔하게 정돈된 소영의 방.

-cut to-

정면의 컴퓨터를 응시하는 소영, 침을 꿀꺽 삼킨다.
소영의 눈 앞에 펼쳐지는 백지.
깍지를 끼고 고민하는 소영, 조심스럽게 글을 치기 시작한다.

언젠가 K가 말했다.

“귀 밑을 스치는 바람에 소스라치게 몸서리 쳐 본 적 있니?”

글을 써내려가는 소영의 뒷모습...

이때, 갑자기 울리는 소영의 휴대폰.

김반장: (소리) 어, 미안해. 모처럼 쉬는 데 전화해서...

소 영: 아뇨,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김반장: (소리) 거, 이형사 갖고 있던 김민정 자료들 있잖아.

소 영: 네. 그거 다 분류해서 올렸잖아요.

김반장: (소리)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엄마와 딸'이란 그림, 그 그림이 없네... 본 적 없어?

소 영: 네?! 그... 그러고 보니...

F.O

#85. 에필로그. 호텔 로비. 저녁

호텔 입구로 들어서는 소영과 김반장, 데스크로 다가간다.

김반장: (신분증을 보이며) 경찰입니다. 신고 받고 왔는데요.

직 원: 아, 네... 14층입니다.

-cut to-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김반장과 소영.

소영, 옆에 있는 작은 데스크에 놓인 신문을 보고 집어 든다.

'딩~'하는 소리와 함께 열리는 엘리베이터.

안에는 말끔한 정장의 남자 한 명이 있다.

올라타는 소영과 김반장.

소 영: (신문을 보며) 에이씨~ 또 떨어졌네...

김반장: 뭐? 신춘문예진 뭔지 그거? 붙는 게 이상한 거지... 니가 신춘문에 되면, 그때 난 노벨상 탈꺼야... 세상 그리 만만한 게 아니에요~

소 영: (썰썰) 핏!!

'딩~'하는 소리와 함께 14층 문이 열리면,

내리는 소영과 김반장.

순간 오싹하는 소영!! 고개를 돌리면...

닫히는 엘리베이터 문.

김반장: (소영에게) 뭐해!?

소 영: 아, 네!!

고개를 한 번 가웃 하고는 그냥 김반장을 따라가는 소영.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에서 손가락을 떼는 남자의 오른손에 있는 가로로 놓인 흉터!!

#86. 에필로그. 호텔방. 저녁

노트북으로 주식시세를 보는 남자, 인상을 찌푸리고...

이때,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 벨소리.

에필남: (전화받으며) 어! 미안해. 좀 전에 도착했어. 내일 브리핑 생각 때문에 정신이 없었
어서... 응...

일어나 창가로 가는 남자, 야경을 보며 전화를 한다.

에필남: 애는? 자? 어, 그래... 알았어. 어, 어...

이때, 노트북 화면이 시커멓게 되더니 민정의 홈페이지가 저절로 열린다!

이어, 모니터 가득 펼쳐지는 '엄마와 딸' 그림!!

여전히 창밖을 보며 전화를 하는 남자.

남자에게 서서히 다가가는 누군가의 시점!

에필남: 어... 내일 브리핑 끝나고 바로 올라갈 꺼야. 그래. 어... 사랑해.

창에 비치는 남자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 남자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민정!

남자, 휴대폰을 끄고 고개를 들면, 그제야 그의 뒤에 누군가 바짝 서있는 것을 본다!

'헉!'하며 놀라 고개를 돌리는 남자.

암전.

암전을 뚫고 나오는 찢어질 듯 한 남자의 비명소리!!

(엔딩 크레딧)

-END-